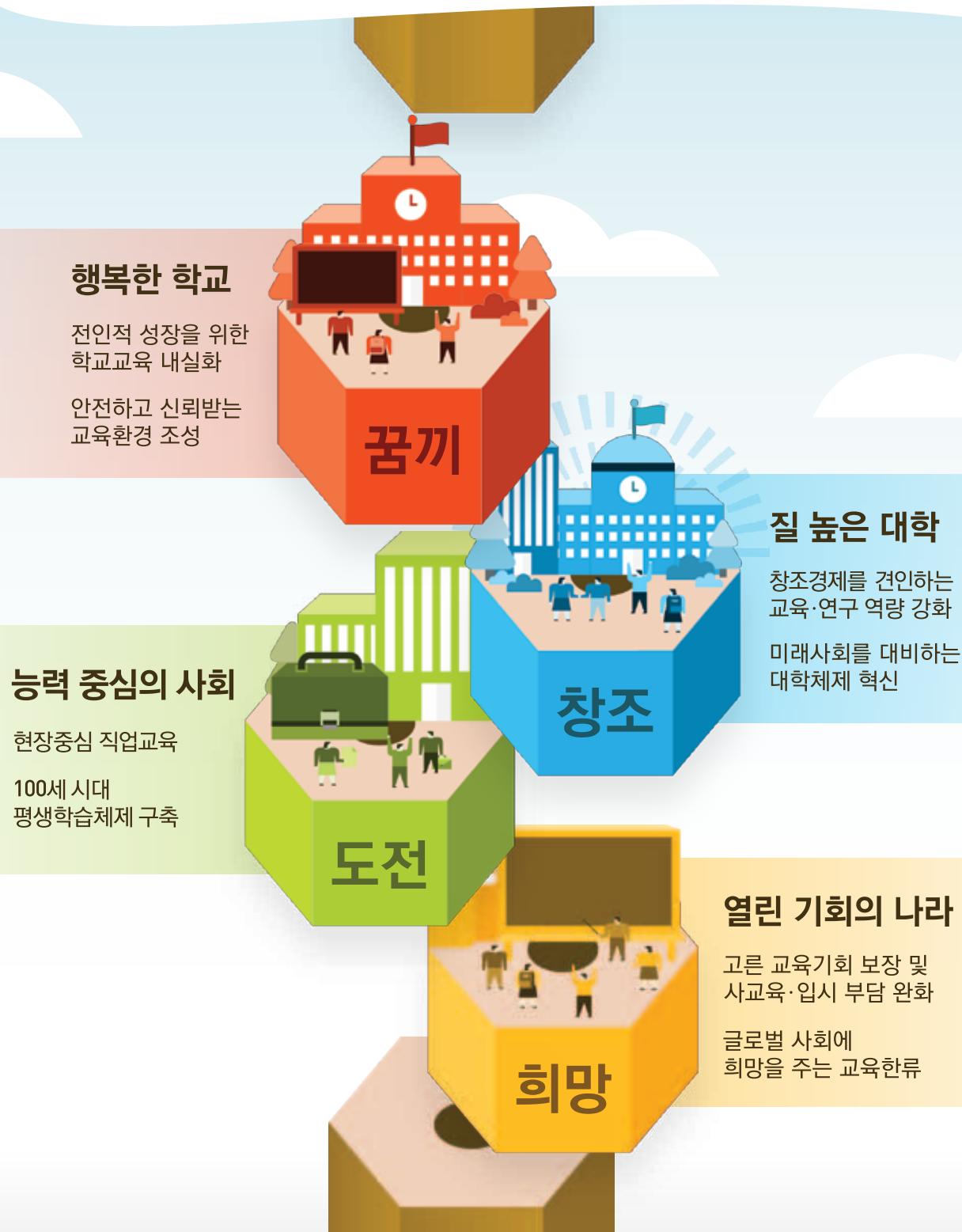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행복한 교육

자유학기제로
붕어빵 교육과정 '이제 그만!'

학부모와 함께하는 정책대화 _
“자유학기제로 학력 떨어질까 걱정돼요”
인류의 위대한 지원 ‘창의력’



Contents

3 March 2014 | Vol. 380

정책

기획 I 자유학기제로 봉어빵 교육과정 '이제 그만!'

03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으로 변화_이상은

06 학생중심수업 교육과정 : 경북 문경서중_ 이순이

08 동아리 활동 중점 자율과정 : 강원 함태중_ 한주희

10 예체능 중점 자율과정 : 대전 한밭여중_ 이순이

12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자율과정 : 서울 잠실중_ 한주희

14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꿈 키운다_ 황규호

16 학부모와 함께하는 정책대화

"자유학기제로 학력 떨어질까 걱정돼요"

류정섭 / 최혜영 / 김지영 / 주성민

21 정책카툰

22 2014 교육부 업무보고

사교육·입시 부담 줄어드는 행복교육 실현_ 편집실

26 정책해설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_ 김현진

30 교육부 정부 3.0

32 서남수 장관의 행복한 교육이야기



| 33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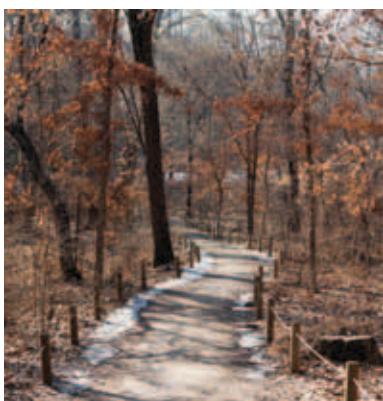


현장



COVER STORY

대전외심중학교(교장 정상신) 학생들이 꿈과 끈을 쏘아 올릴
로켓 모형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대전외심중은 자유학기
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교육적 도전을 이어오고
있다.



| 83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투고를 기다립니다(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

기획Ⅱ 인류의 위대한 자원 '창의력'

- 56 창의적 인재 육성의 목적과 과제_ 조벽
58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학교 경영 방안_ 최병국
60 학습자의 수업 주도력을 통한 창의력 신장_ 이성희
62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사의 발문_ 백영선
64 행복칼럼 병아리를 품는 어미닭처럼…_ 김정제
66 교육과 법 사설캠프에 참여해 사고를 당했다면…_ 염철현
68 학교·학급경영노트 소통·공감 행복교육 디자인_ 김순옥
72 아이의 사생활 외모제일주의 '셀프성형'을 아시나요?_ 김서규
74 뉴스브리핑 전통문화 교육기부 주간프로그램 운영 外_ 편집실
76 시·도교육청은 지금 강원/경북/울산/제주
80 진로나침반 교과와 통합한 진로교육 준비하기_ 허은영

교양

- 83 일상의 쉼표 국립수목원_ 황자경
87 문화 트렌드 가볍고 편하게 즐기자, 스낵 컬처_ 편집실
88 행복게시판 행복한 교육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 五자만담



기획 I

자유학기제로 붕어빵 교육과정

‘이제 그만!’

자유학기제의 의미는 시간 운영보다는 교육과정과 평가 등에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수행하는 특별한 학기를 운영한다는 데 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으로 △진로 교육 강조, △학생의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 △학교별로 자율적이면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학기 교육과정은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과정'은 기본 교과인 주제교과들로 주로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예술·체육 교과가 포함된 '자율과정'은 오후 또는 전일제로 운영된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결과, 다양한 교육과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으로 변화
- 학생중심수업 교육과정_ 경북 문경서중학교
- 동아리 활동 중심 자율과정_ 강원 함태중학교
- 예체능 중심 자율과정_ 대전 한밭여자중학교
-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심 자율과정_ 서울 잠실중학교
-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꿈 키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으로 변화

글 | 이상은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위원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났다. 이제 주변에서 자유학기제라는 말을 듣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2016년 전국 모든 중학교로의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작년 42개 연구학교가 먼저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전국의 38개 연구학교와 500여 개의 희망학교가 뒤를 이을 예정이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가 조금씩 학교 현장 속에 녹아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학기제 정착의 핵심 요소인 교육과정 설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꿈과 끼를 찾는 일과 교육과정 연계

지금의 학교 모습이 갖추어진 100여 년 전부터 학교의 주요 교육 내용은 ‘교과’였다. 쉽게 말해, 학교의 교육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과 비슷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과들은 오래된 인류의 지적 자산으로서 학생들이 배우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이다. 다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관례화된 방식, 그리고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있어 유연성의 부족에 있다. 즉 처음에 이러한 교과들을 학교의 주요 교육내용으로 선택한 이면에는 이 교과를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역량이 분명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이것이 관례화되어 처음에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인 역량은 잊은 채, 그 수단에 해당하는 지엽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마치 교과 공부인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21세기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과거에는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대개 기존의 한 교과에만 속하기보다는 여러 교과에 걸친 범교과적인 성격을 띠는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범교과적 내용들을 여전히 분과된 교과의 틀 속에 매우 제한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학교의 교과 공부가 점차 아이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가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바꿔보자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 동안의 교육과정은 교과를 교과답게 배우기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덜어 내고, 새롭게 중요성이 대두되는 내용은 넣고, 서로 관련되는 내용은 융합적으로 접근할 있도록 변화를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결국은 학교에서 교과를 배우는 일이 아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꿈과 끼를 찾는 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 2. 기존 교과 수업에 배당된 시수를 일부 감축해 자율과정에 배분하는 과정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위해 교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르고자 했던 역량을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덜어내고, 새롭게 중요성이 대두되는 내용은 넣고, 서로 관련되는 내용은 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국은 학교에서 교과를 배우는 일이 아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꿈과 끼를 찾는 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통과정'과 '자율과정' 두 축으로 운영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이 그것이다. '공통과정'은 소위 밀해 기준에 학교에서 주로 가르쳐 오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들로 구성된 영역이다. 다만, 기존의 교과들을 가르치되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성취기준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권한다. 이것은 교사들이 교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각 교과를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은 가르쳐야겠다는 핵심 내용을 교육과정을 통해 선별하여 가르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자유학기제 동안은 중간, 기말고사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한편, '자율과정'은 사회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즉 교과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나,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자율과정'이다. 이러한 자율과정은 구체적으로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체능 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 등의 세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한 학기 동안 전체 수업의 3분의 2 가량은 공통과정으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자율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틀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것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

지난 학기 동안 처음 실시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42개교)를 살펴보면, 기존 교과 수업에 배당된 시수를 일부 감축하여 자율과정에 배분하는 과정이 학교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학교들의 경우 공통과정과 연계된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교사가 담당하기 어려운 내용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초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상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자유학기제가 또 하나의 봉어빵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린다는 말의 의미가 기존의 교과 공부는 그대로 두고 단순히 진로 체험 활동만 추가로 더 얹으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길, 그것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는 여타의 진로 체험활동을 통해서는, 그것의 최적화 방식을 찾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남은 과제이다. 현 시점은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가 허울 좋은 명분으로서가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통해 내실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교사도 학생도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기획 I

자유학기제로 봉어빵 교육과정 '이제 그만!'

학생중심수업 교육과정_ 경북 문경서중학교

상시교육 주간 & 진로탐색 주간으로 재편성

글 | 이순이 본지 기자

문경서중학교는 학년별로 2학급 규모로 지난해 1학년생은 총 42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학부모가 생업을 위한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학습부진과 학교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다수였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문경서중은 상시교육활동 주간과 진로탐색 주간을 운영하는 등 특색있게 교육과정을 재편성하였다.

학생 중심의 수업… 진로탐색 기회 넓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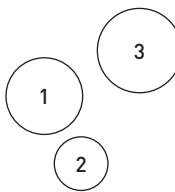
우선, 매월 1~3주를 상시 교육활동 주간으로 정하여, 오전에는 핵심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교과 교육활동을, 오후에는 예체능 활동, 선택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매월 마지막 4주에는 진로탐색 주간으로, 오전에는 1~3주와 마찬가지로 기본 교과 교육활동을 하되,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문경서중은 국어, 도덕, 영어, 수학은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토론,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학생 주도의 수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의 경우 실험, 실습, 체험학습, 프로젝트 수행 등 탐구와 사고 중심의 수업을 강화했다. 블록 타임제를 바탕으로 다수의 교사가 한 수업에서 함께 가르치는 협동교수, 주제 또는 교과과정 중심으로 여러 교과 내용을 연계하여 융합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융합수업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일례로 '재활용품을 활용한 환경교육'을 주제로 융합수업을 진행하면서, '국어과'에서는 지구촌 환경 개선에 대한 토의 단원과 '기술가정과'에서는 PVC파이브를 이용해 오르간 만들기나 음정 튜닝 등을 융합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또 '음악과'에서는 이렇게 만든 PVC파이프 오르간을 이용해 연주와 감상에 대해 배우는 식이다. 교과시간에 텁티칭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미술가가 된 수학자'를 주제로 미술과에서는 테셀레이션(한 가지 이상의 도형을 이용해 틈이나 포개짐 없이 평면이나 공간을 완전하게 덮는 것) 작품 감상과 디자인 만들기를, 수학과에서는 다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도블럭에서 수학의 원리를 발견하거나, 정다각형 보도블럭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 수업하였다.

진로탐색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위해서 교과 수업시수를 조정하였다. 문경서중은 국어과를 17시간 감축하였으며 '진로와직업'은 1학년 2학기에 34시간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선택프로그램을 34시간 확대하고, 자율활동과 봉사활동 시수를 줄이는 대신 진로활동 시수를 34시간으로 확대하여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당 2시간의 창의





1. 국립중앙과학관 견학
2. 케이크 만들기
3. 문경서중의 전교생이 참여하는 전일제 진로체험의 날. 일부학생들이 경주일대를 둘며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적 체험활동 수업을 블록타임으로 운영함으로써 9월에는 진로콘서트 관람, 10월에는 미술 전시회 관람, 문경 사과축제, 한우 축제 탐방, 문경도자기 전시회 관람, 11월에는 비즈쿨 동아리 체험, 의정활동 체험, 케이크 만들기, 찾 아가는 맞춤형 진로체험, 12월에는 뮤지컬 관람 등 다양한 진로탐색 ·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주로 가까운 곳의 체험현장을 방문하거나 진로체험활동을 교내로 끌어 들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최대의 체험효과를 얻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전일제 진로체험의 날

또한 문경서중은 진로탐색 주간이 있는 금요일에는 전일제 맞춤형 진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전일제 맞춤형 진로 체험활동은 자유학기제 대상인 1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교생 대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회 학생들의 진로직업 적성과 희망 진로체험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여 체험 장소와 교육활동 내용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맞춤형으로 진로탐색 활동이 가능도록 하였다.

지난해 10월, 경주-포항(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경주 양동마을 체험, 포항제철소 철강 산업 체험 등), 포항(떡 체험관, 양동마을 체험, 포스코역사관 체험 등), 양평(임실치즈체험장, 농촌체험장 전통 문화 체험, 소나기마을 문화 체험 등), 부천(애니메이션 박물관, 아인스월드 세계 건축물 체험 등) 일대를 코스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후에도 문경서중은 월 1회 전일제 맞춤형 진로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심어주고 있다. ❷

[표]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매월 1~3주] – 상시 교육활동 주간 운영 모형

	월	화	수	목	금
1					
2					
3					
4				진로 활동	
5			예체능	예체능	진로와 직업
6	예체능	예체능	예체능	예체능	진로와 직업
7	진로 동아리 활동	선택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	스포츠 클럽
8	방과후 학교	선택프로그램	X	X	X

[매월 4주] – 진로탐색 주간 운영 모형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					
6			진로 활동	예체능	예체능
7	예체능	예체능	예체능	예체능	예체능
8	X	X	X	X	X

전일제
맞춤형
진로
체험
활동



기획 I

자유학기제로 봉어빵 교육과정 '이제 그만!'

동아리 활동 중점 자율과정_ 강원 함태중학교

주4시간 동아리 편성... 직업군별로 운영

글 | 한주희 본지 기자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정시간에만 실습을 할 수 있어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요리반 동아리에서 매주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일주일이 기다려졌지요.”

강원 태백 함태중 2학년 최별 양의 꿈은 요리사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를 보낸 최 양은 매주 금요일 오후 수업을 요리반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오후 진로자율과정 편성으로 요리반이 개설된 덕분. 최 양은 “내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시간이었다.”며 활짝 웃는다.

예능·취미분야 직업군별로 동아리 조직

지난 2학기부터 자유학기를 도입한 함태중은 1학년 한 학기를 오전 기본교과, 오후 진로자율과정 편성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전에는 각 교실마다 다양한 활동중심의 교과 수업으로 이뤄진다. 국어실에서는 학생들이 나의 인생목표를 작성하고 나만의 위인 발표하기 진로 통합수업을 하

는가 하면, 사회실에서는 그룹별 모의 선거, 도덕실에서는 소설을 읽고 인권 UCC 제작하기 등 융합 수업 등이 이뤄져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 최별 양은 “수업 방식이 달라져서 지루하지 않고 좋아요. 사회 시간에 세계지도 퍼즐만들기를 하는데 모둠별 경쟁이 치열했지요.”라며 환하게 웃는다.

오전 기본교과 수업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라면 오후에는 △월·화요일 진로 수업, 음악 체육 중점 동아리 활동 △수요일 예체능 집중 선택활동 △목요일 자율동아리 활동 △금요일 소질 및 흥미 계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된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오후 진로자율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 진로탐색, 예체능, 동아리 등으로 이뤄지는데 함태중의 경우 동아리를 중점으로 교육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모여 취미나 적성, 가치관과 생각을 나누는 집단으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이 이뤄져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토론과 실습,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유학기제 취지와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엄혜현 교사의 말이다.

우선, 자율과정에 주4시간 동아리를 편성하고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음악, 스포츠, 미술, 과학, 어학 등 부서를 다양하게 개설했다. 특히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 예능·취미분야 직업군별로 동아리를 조직, △예술·취미 동아리(끼세상, 신명세상), △교과와 연계한 동아리(독서토론, 과학실험반 등)로 기존 계발활동과는 차별화를 꾀했다. 현재는 뇌체조, 모의창업반, 중국어 회화 등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활동 부서들도 운영 중이다. 엄혜현 교사는 “동아리 개설 전 1, 2차 학생 수요도 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 체험 욕구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강조한다.





매주 금요일 개설된 미술 취미 교양 동아리

1. '맛세상, 멋세상, 나눔세상' 요리반 활동
2. 'HBS 소리샘' UCC영상제작반 활동

2

특히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폐광지역 소도시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외부강사와 재능기부 활동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고안했다. 부서 인원을 한 반에 20명 내외의 소규모로 조직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했다.

전체동아리와 자율동아리로 이원화

월, 화요일 진로수업에서는 학기 중 2회 이상 전일제 체험을 통해 직업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는 삼척 어촌체험, 태백 365 안전체험타운의 소방학교 실습, 강릉 희망공간에서의 병원,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체험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수요일 자율과정에서는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을 집중 편성한 점이 특징. 예술적 잠재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기 위해 음악 집중, 미술 집중, 체육 집중 과정반을 개설하고 무학급제 선택반으로 운영 중이다. '화음세상', '미술과 삶', '뉴스포츠', 'Movement' 반으로 각각 특화 심화된 예술 수업은 아이들의 예체능 활동 효과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정규교육과정 안의 교과목으로서 동아리에 어떻게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전체 동아리와 자율동아리 2개의 틀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동아리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한 동아리로, 학생들이 스스로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을 공개모집하고 담당교사도 직접 섭외해 운영한다. 그 결과 만화반, 독서토론, 산행 등의 동아리가 조직됐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점이 장점이다.

현재는 월·화요일 음악·체육 관련 부서 17개 반, 금요일 미술·취미 교양 관련 부서 7개 반(UCC영상제작, 아이클레이 아트, 종이접기, 바른손글맵시 등)이 운영 중이며, 목요일 자율동아리 7개 반은 학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학기 중 '작은 음악회' 발표와 학년말 학교 축제와 연계되며 학생 개인별 '성장일지'에 기록된다. 홍성봉 교사는 "교사로서 수업 개선과 각종 체험학습 진행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 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생긴다."고 말한다. 엄영훈 교장은 "1년의 경험을 통해 전 학년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고 연차적으로 더욱 내실 있게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표]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구분	월	화	수	목	금
1	공통과정 - 기본교과 편성(22시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 핵심성취수준 기반 수업 • 다양한 수업방법 개선을 통한 학생 활동 참여중심 수업 구현 				
3					
4					
5	진로탐색 활동 꿈세상		예술·체육 활동 신명세상		동아리 활동(3) 끼세상
6					
7	동아리 활동(1) 끼세상		자율동아리 활동(2) 끼세상		교과 방과후 활동
8					

* 진로 4~10시간 +동아리(음악, 체육)
2시간 + 예술·체육 3시간 + 동아리
2시간 = 11~17시간



기획 I

자유학기제로 봉어빵 교육과정 '이제 그만!'

예체능 중점 자율과정_ 대전 한밭여자중학교

음악, 미술, 체육 3대 분야 12개 프로그램 구성 운영

글 | 이순이 본지 기자

채은(가명) 양은 요리에 무척 관심이 높아졌다. 평소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채은 양은 학교 동아리에 요리반이 생기자 고민하지 않고 가입했다. 한식과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강사선생님의 꼼꼼한 지도를 받으면서 요리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우치고 있다. 채은 양은 요리사가 꿈이라고 확신할 수는 있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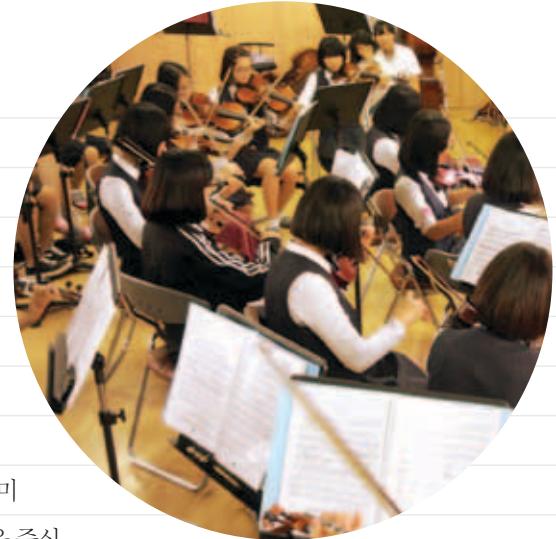
오전엔 기본교과, 오후엔 예체능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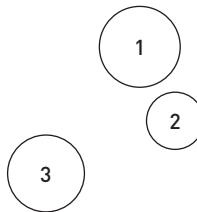
대전 한밭여중은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더불어 자신의 능력, 취미 등을 고려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특성 및 취미 등을 고려한 특성화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지정 학생오케스트라 거점학교인 한밭여중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음악, 미술, 체육 3대 분야의 12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음악 분야는 바이올린, 첼로, 사물놀이, 피아노이며, 미술 분야는 생활디자인, 만화일러스트, 체육 분야는 방송 댄스, 요가, 골프, 축구 등이다. 학생들에게는 예체능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인기가 있다.

한밭여중 1학년 학생들은 오전에는 기본교과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며, 오후에는 특성화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예체능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흐름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학생들은 월요일에는 3차시 연속으로, 목요일에는 2차시 연속으로 자신이 원하는 예체능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한편, 한밭여중은 학생들의 예체능 특기 신장을 위한 맞춤형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감성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의 특기,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1:1 맞춤형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배우고 전문 직업인의 지식과 태도를 배우고 있다. 동아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배우고 싶어 하는 동아리에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다. 여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아리는 메이크업, 관현악, 네일아트, 헤어스타일 링반, 요리반, 포토샵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5교시부터 7교시까지 3차시에 걸쳐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1. 학생오케스트라 거점학교인 한밭여중은 다양한 음악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3. 한밭여중은 학생들의 예체능 특기 신장을 위해 맞춤형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요리반과 헤어스타일링반

또한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과 진로를 배우는 한편, 진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진로 독서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진로 독서를 활용한 토론 학습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진로 발달상태를 고려하여 도서를 선정하고 학급별로 도서를 구매하여 매주 돌려 읽는다. 또 진로에 대한 독서 토의 · 토론회를 실시하여 독서일지와 독서인증시스템에 작성하고 있다.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선택 프로그램 등 이런 일련의 활동은 SCEP와 에듀팟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누적 관리하였다.

예체능 활동 · 동아리 활동 · 진로독서하며 진로탐색

한밭여중은 이러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교과 간의 시수를 조정하였다. 기본교과는 22시간을 운영하며, 매일 3~4교시는 블록타임을 운영한다. 그밖에도 예체능 활동(5시간), 동아리 활동(3시간), 진로탐색(3시간), 진로독서 프로그램(2시간) 시수를 조정하였다. 따라서 기본교과의 사회, 도덕, 수학과 같은 시수가 1시간 줄었다. 예술 · 체육의 진로는 1시간 증가했으며, 동아리 · 자율 · 봉사 · 스포츠 시수는 2차시 증가하여 4시간이 운영되고 있다.

이윤경 교사는 “특성화된 예체능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문화감성과 소질이 계발되고 진로 탐색 능력이 신장되었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조성할 수 있었다.”며 “맞춤형 동아리 활동 또한 진로와 관련된 직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체험해봄으로써 진로 탐색 능력이 신장되었다.”고 말했다. ☞

[표1] 예술 · 체육 중점 모형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	예 · 체능 활동	진로 탐색			
6			진로독서 프로그램	예 · 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7					

[표2] 자유학기제의 수업 시간표

요일	시간	체험활동 시간표						교과 시간표					
		1-1	1-2	1-3	1-4	1-5	1-6	1-1	1-2	1-3	1-4	1-5	1-6
월	1	기가	국어	수학	수학	국어	사회	기가	국어	수학	수학	국어	사회
월	2	국어	과학	도덕	기가	수학	수학	국어	과학	도덕	기가	수학	수학
월	3	수학	수학	영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수학	영어	영어	사회	과학
월	4	수학	수학	영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수학	영어	영어	사회	과학
월	5							진직	사회	음악	체육	체육	진로
월	6							도덕	진직	체육	진로	음악	체육
월	7							미술	체육	진로	음악	체육	진직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자율과정_ 서울 잠실중학교

학생 흥미 반영 주4시간 12개 선택프로그램 편성

글 | 한주희 본지 기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경험해 좋았어요.”

“하고 싶지 않은 과목이었는데 배우고나니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게 됐어요.”

“꿈꾸던 직업을 직접해보니 그 분야에도 여러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난해 자유학기를 보낸 서울 잠실중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김동연 잠실중 교사는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가 없어진 것을 꿈이 이뤄진 것처럼 좋아했다.”며 “시험은 없었지만 학습태도는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훨씬 진지했으며 학기말까지 수업이 차분하게 잘 이뤄졌다.”고 말한다. 지난 학기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결과다.

목공예·모의창업 등 12개 반 개설… 자유학기 동안 4개 선택

잠실중은 자유학기 동안 교과 시간을 단축해 주4시간을 선택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한편, 주1시간을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으로 신설했다. 선택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수업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학생수요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18개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 희망 신청에 의해 12개 프로그램을 최종 선택했다(표2 참조). 모의창업, 목공예, 스마트앱 개발 등 생소한 분야가 개설되며 학생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한 학기는 상반기(9, 10월), 하반기(11, 12월)로 구분, 학생들이 자유학기 동안 1인당 총 4개 선택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프로그램은 학생의 흥미, 적성에 따른 학생 수요 기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활동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

는데, 단기적인 교육 효

과보다 중장기적인 교

육 목표를 가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지요.” 김동연

교사의 설명이다.

문제는 선택프로그램

을 담당할 전문 인력. 잠실중

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언론

진흥재단 등의 협조로 강사를 섭외하

면서도 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오

리엔테이션을 병행했다. 교육 현장

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강의 내용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생 평가 방

법과 수업 중 학생 지도 주의 사항 등

을 안내했다. 특히, 각 프로그램별 전문 강

사 1인과 교사 1인이 공동으로 지도하는 한편, 프로그램

내용을 중1 수준에 맞게 구성해 △흥미 있는 활동 위주, △

관련 산업 및 직업 소개, △미래 전망을 포함했다. 강사들

의 강의계획서는 미리 검토하고 수업 중 지속적인 보완 수

정으로 내실화를 꾀했다. 담당교사는 평소 학생들의 활동

을 자세히 관찰해 기록하고, 장점 위주로 학생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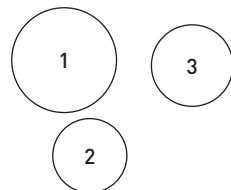
을 서술했다.

시험기간 동안 일터체험 ‘인기’… 동기유발로 참여 독려

잠실중의 활동 중에 눈에 띄는 건 동기유발 프로그램이

다. 선택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선택프로그램 활동

1. 드라마와 광고
2. 로봇연구
3. 바리스타

하기 때문에 8월 개학 이후 9월 전까지 총 6차시에 걸쳐 선택프로그램 시간에 동기유발을 위한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 8월에는 ‘꿈을 꿔도 괜찮아’를 주제로 자유학기 변화를 준비하면서 학기 학업 계획과 공부 방법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기말고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일터체험은 가장 인기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 60~70곳에 학생 400여 명을 기업당 5~6명씩 조를 짜 보내 해당 직업을 체험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을 소규모로 조성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다는 점이 특징. 홍옥희 교감은 “자유학기제를 학부모가 반대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공부에 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한다. 지난해는 시험 기간 동안 일터체험뿐 아니라 도자기 체험, 꿈 페스티벌, 뮤지컬 관람 등

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학생 대상 선택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은 “흥미와 적성을 찾고 진로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하반기 평가에서는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나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수업시간에 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김동연 교사는 “협동학습을 통해 사회성이 좋아졌고, 가정에서도 부모들과 사이가 좋아짐을 알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서 앞으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 됐다.”고 설명했다. 교사들 또한 수업 개선으로 인해 부담을 가지긴 했으나 자유학기제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 다만, 앞으로 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방안과 교사의 업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

[표1] 시간표 운영

	월	화	수	목	금
1	교과				
2	진로와 직업				
3	교과				
4					
5	창체(스포츠동아리)				
6	스포츠클럽				
7					
		선택 프로그램		선택 프로그램	

[표2] 선택프로그램

연번	선택프로그램	연번	선택프로그램
1	모의 창업	7	스마트폰 앱 개발
2	디자인	8	로봇 연구
3	애니메이션 제작	9	드라마와 광고
4	영화 영상 제작	10	요리 실습
5	바리스타	11	과학 탐구반
6	목공예	12	보컬 트레이닝 및 실용음악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꿈 키운다

글 | 황규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자유학기 시범운영이 한 학기에 걸쳐 시행되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는 학교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연구학교들은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진로의식,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교과 간 통합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유학기 학년이 아닌 2·3학년 담당 교사들에게까지 수업개선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변화야말로 자유학기의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추구해야 할 '자유'

자유학기가 처음 논의되었던 단계에서는 주로 '진로교육'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 중학교 전체, 더 나아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의총체적인 교육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유학기를 통해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자유'의 의미와 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첫째, '자유로운 꿈'의 지원으로, 이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지배되는 한 줄 세우기 수직적 경쟁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이해, 진로의 탐색과 체험 및 설계, 나의 삶에 대한 성찰과 삶의 방향 설정 등 광의의 진로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자유로운 선택'의 확대로, 이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편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자유학기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편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은 물론, 교과 교육 시간에 있어서도 주어진 과목들을 수동적으로 이수하는 현행 체제를 일부 개선하여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에서 일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 탐구·체험 활동’의 활성화로서, 이는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공부만을 의미 있는 공부로 간주하는 현재의 학교 교육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소질이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개발하여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자유로운 창의사고’의 함양으로, 이는 정답 찾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고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토론 수업의 활성화, 체험 및 참여 중심의 수업 개선, 선택형 중심의 일제고사형 평가의 탈피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며, ‘재미없는 공부’를 벗어나서 학습의 즐거움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섯째, ‘자유로운 학습 공동체 학교’의 구현으로, 이는 학교 풍토의 혁신을 위한 규제와 인습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시간표 운영의 자율성 확대, 외부 평가로부터의 자유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율성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학교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제언

자유학기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한 계기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육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학교 현장의 자발적·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는 국가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단위학교의 학교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 기간 중에는 해당 학기에 배당된 교과교육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과별 핵심성취기준의 학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교과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탐구 및 체험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교과교육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가적 접근’과 이를 교과교육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적 접근’을 단위학교별로 선택, 또는 절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유학기’와 ‘자유학기 이외의 학기’ 사이에 학생들의 ‘학교교육 경험의 단절’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유학기를 통해 이루어진 긍정적인 학교교육의 변화를 다른 학기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중간·기말고사의 폐지를 전 학년에 걸쳐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관련되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학생의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의 방안들은 다른 학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 혁신의 확산은 이미 연구학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 상호간 ‘집단적 대화’의 시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 평가 준비를 위한 업무 과중의 문제, 교육부 및 교육청에 대한 각종 실적 관리 및 보고를 위한 행정업무 부담의 문제 등은 학교 현장에서 힘들어 하는 업무 부담의 사례들이며, 따라서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외부 강사비, 현장체험학습 경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자유학기제로 학력 떨어질까 걱정돼요”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 없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01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이 많을 터.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교육부 정책 담당자가 한자리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대화에는 연구학교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직접 경험해 본 학부모와 우리나라 사교육 일번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지역의 학부모, 그리고 정책적인 시각에서 제도를 바라보는 학부모단체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 속내를 살펴본다.



참석자

류정섭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

최혜영 경기 신길중학교 학부모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김지영 서울 영동중학교 학부모

주성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책위원장

좌담 일시

일시 : 2014년 2월 13일(목) 오후 4시

총 팔 : 곽은우 본지 총괄 교육연구사

진행 : 황자경 본지 편집장

정리 : 한주희 본지 기자

진행자 | 자유학기제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인론을 통해 접하면서 다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김지영 |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을 놀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일부 학부모는 어차피 성적이 안 들어가면 이때 어학연수라도 보내자는 얘기도 있지요. 한 학기 동안 ‘언어 하나라도 잡자’는 생각이에요.

주성민 | 자유학기제가 꾸준히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교육 현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불안하지요. 특히 성적이나 입시에 불

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크고요.

류정섭 |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단기로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건 다들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경쟁’에 의한 공부에 허덕이고 있지요. 중학교로 진학하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공부를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이 학교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스스로 학습에 흥미를 느끼면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공



“

스스로 학습에 흥미를
느끼면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발점입니다.

류정섭



틀에 얹매이지 않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아이들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수업을 통해 만든 결과물도
놀라울 정도죠.

최혜영

”

부를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겁니다. 자유학기제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발점입니다. 중학교 한 학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최혜영 | 중1인 둘째 아이가 지난해 자유학기를 경험했어요. 해보니 ‘괜찮은’ 교육 방법이라는 확신을 얻었지요. ‘언제 또 바뀔까’라는 우려가 없다면요. 입시와 연계할 수 있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만큼 괜찮다는 겁니다. 중학교에 가면 대부분 아이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자유학기 동안 달라진 교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장서 수업을 주도하고 선생님은 뒤로 물러나 있어요. 성적을 잣대로 아이들을 구분하는 분위기도 바뀌더군요. 아이들조차 수행평가를 할 때 잘하는 친구와 함께 하고 싶지, 못하는 친구는 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 아이와 짹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다양한 체험·참여형 수업활동이 이루어지자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두드러졌지요.

자유학기 동안 공부를 안 한다?

김지영 | 수업은 오전에만 하나요? 다양한 활동과 체험이 수업이 될 수 있나요?

류정섭 |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오해는 ‘자유학기 동안 공부

를 안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영어교과의 경우, 단어 암기나 문법 위주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영어로 말하고 토론하는 학생 중심 수업으로 바뀐다고 보면 되지요.

최혜영 | 자유학기제를 경험해 보니 체험 활동이 단순히 견학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진로체험 위주의 선택프로그램을 진행한 신길중의 경우, 아이들이 미술관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직접 듣고 배웠어요. 수업에 임하는 자세부터 다르더군요. 교과수업은 융합수업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돼요. 교과서 틀에 얹매이지 않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아이들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수업을 통해 만든 결과물도 놀라울 정도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학부모들도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됐다는 점이에요.

김지영 |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왜 모든 학교가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아일랜드의 경우는 선택이에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데 자율권을 줄 수는 없나요? 특히나 가르치는 교사가 융합수업 등을 해본 세대가 아닌데, 달라진 수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주성민 | 사실 현실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어요. 학교 단위로



자유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적이나 입시에서 불리한 학교가 생기는 건 아닌지 고민도 되고요.

류정섭 | 아일랜드의 경우 중·고등학교 과정이 5년으로, 그 후 1년은 전환학기(사회를 미리 체험하여 진로탐색을 하는 기간)를 둬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가 의무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교사들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융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육과정을 펼쳐 놓고 서로 관련된 주제로 긴밀하게 수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간 단절됐던 교과목 간 융합이 이뤄지고, 교사들은 함께 고민하며 수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지요. 그동안 수업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스스로 수업을 고민하며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학교 또한 각자 여건에 맞는 최적의 교육방법을 찾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건 긍정적인 변화라 볼 수 있어요.

자유학기는 꿈을 만드는 과정

주성민 | 말씀하신대로 교육 현장이 바뀐다면 아이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큽니다. 교사들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될 것이라 생각에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교육의 중심축이 각 학교로 옮겨질수록 개별 격차도 그 만큼 커지지 않나요? 일례로,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도시지역 학교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 또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학부모들이 수긍할 거라 생각해요.

류정섭 | 전국 40여 개의 학교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시범 운영한 결과, 말씀하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연구학교 가운데는 섬 지역 학교도 있었

는데,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요. 올해 학부모, 교사들이 원해서 신청한 자유학기제 희망교만 600여 개교에 달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조금씩 교육 현장에 안착되고 있고, 인근 학교에도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서 협업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고, 교육기부도 장려하고 있어요.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지역 인프라와 학교와의 매칭시스템입니다. 사실 교육은 학교 울타리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 도와줘야 하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혜영 | 사실 6개월 동안 자유학기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꿈을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다만 꿈을 갖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한 학기 동안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자기 꿈을 찾는데 시간을 쏟고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고 눈만 뜨면 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김지영 | 자유학기 동안에는 좋지만, 그 다음 학기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요?

류정섭 | 교사들이 자유학기 동안 수업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자유학기제에서의 경험은 다음 학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또한 자유학기제에 도 평가가 있습니다. 지필시험만 없을 뿐 포트폴리오나 수업태도 등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져 교사가 아이들의 매 순간을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지요. 아이의 학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 한편으로,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오히려 더 커진다고 봐야 합니다.



“
자유학기 동안 지필시험이
아닌 활동결과물들로 아이들의
사고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도
됩니다.”

김지영

한 학기가 아이 일생에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가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려는
고민이 필요해요.”

주성민



집중적으로 교과 지식을 암기하고 복습하는 공부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체험하고 토론하고 사회에 나가 직접 보
는, 아이의 삶과 연계되는 학습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적 효
과를 거둘 수 있지요.

주성민 |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고, 진로를 고
민하며 한 학기를 보내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활동 결과가 다음 학기까지 꾸준히 이어지기 위
해서는 입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학기가 아이 일생에
'휴가'가 아니라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가 입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려는 고민이 필요해요.

최혜영 | 동감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좋다는 건 인정하지
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불안감이 뒤따라요. 학교에서 자유학
기를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어차피 학원에서 공부하니 괜
찮겠지' 하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를 경
험하면서 오히려 학원을 그만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아이
가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분야에 더 재능이 있고 좋아
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지요.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입시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글쎄요. 현실
적으로 엄마들은 입시를 포기할 순 없거든요.

자유학기제, 교육 현장에 안착되려면…

진행자 | 실효성을 높이려면 결국 입시와 연결시켜야 한다

는 의견이신데요, 자유학기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학부
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영 | 특목고를 가려는 학생들은 한 학기가 정말 중요
하거든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
는데 자유학기 동안 과연 편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중학
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명문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게 좋지 않을까. 대부분 엄마들이 바라는
일이지요. 자유학기 동안의 활동을 평가해 입시와 연계한
다고 해도 지필시험이 아닌 활동결과물들로 아이들의 사
고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도 됩니다.

류정섭 | 앞으로 평가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평가에
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입시 변화도 가져오게
되지요.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교육과정 개편, 평가, 입시
등도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자
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행복감
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을 점차 보완해 나간다면 최고의 교육체계로
완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성민 | 2016년이면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구
호가 아닌 비전을 보여줘야 해요. 교사의 질 향상과 연구 활
동, 인력 지원 등이 치밀하게 준비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
히나 자유학기제는 지역 활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합니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백년지대계를 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요. 자유학기제 하 나는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류정섭 |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되면 확고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 처음엔 학부모의 90%가 반대했지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좋은 사례들이 나타난 지금은 자유학기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최혜영 | 뜬구름 잡듯이 교사에게 모두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돼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선생님의 업무량을 보면 세 분이 할 일을 혼자서 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어요. 저희 학교는 진로활동 위주로 진행하면서 체험처를 발굴할 때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나 새로운 방법의 수업을 하다 보니 더 어려웠고요. 학부모들이 학습 보조 도우미를 하며 체험활동을 도왔죠.

류정섭 | 그간 우리 교육은 삶과 유리된 교육을 해 왔는데, 자유학기제는 삶과 연계된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아이들의 경험이 중요한 활동이 되지요.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도 중요하지만 자유학기제는 학부모와 교사와 학교와 교육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입니다.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창의성·문제해결력 등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과 교원업무경감, 대학과 특목고 입시 등이 함께 변하고 있어요. 입시에서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으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주성민 | 사실 공교육보다 더 빨리 변하는 건 사교육 시장

입니다. 교육부에서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도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뒤쳐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자유학기 동안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는 융합수업 등 자유학기에서 강조하는 학습들이 이미 이뤄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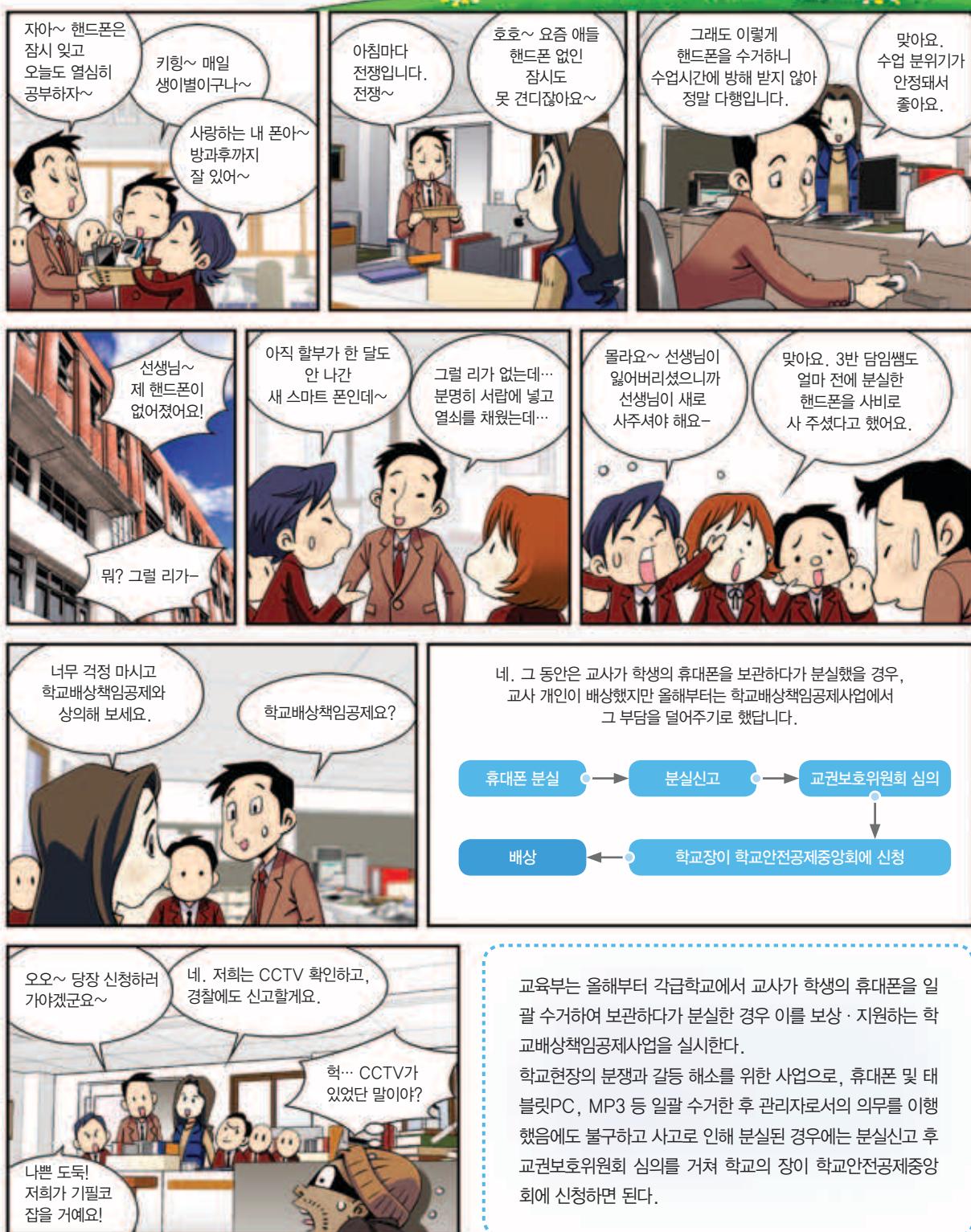
김지영 | 한 학급에만 30여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딸은 특히나 조용한 성격인데 자유학기에서는 활발하고 눈에 띠는 아이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평가에 있어서도 학부모가 납득하려면 세심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행평가에서 1~2점 갖고도 시시비비 논란이 생기는데 자유학기 평가가 성적에 반영이 된다면 논란이 더욱 생길 수 있지요.

류정섭 | 교사들이 논의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아이들이 활동한 내용을 적기 때문에 성격 차나 불평등 논란은 있을 수 없지요. 오히려 조용하고 눈에 띠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열띤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담당자로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류정섭 | 많은 분들이 자유학기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답니다.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추진되는 자유학기제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모적인 무한경쟁에서는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꿔나갈 교육 제도를 만들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장래를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가 아니라 교육계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시발점입니다. 교육 현장에 잘 정착되어 우리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❷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



2014 꿈·끼 교육 본궤도 진입... 사교육·입시 부담 줄어드는 행복교육 실현

올해 중학교 5곳 중 1곳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며 꿈·끼 교육을 본격화한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서는 한편, 인문지식의 창조산업화를 위한 ‘인문 브릿지’ 사업이 추진된다. 창업휴학제 도입 등으로 창업교육이 내실화되고, 마이스터고 활성화로 선취업 후진학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사교육·입시 부담 경감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3일 오전 안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남수 장관은 교육부의 2014년 정책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고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키워드로 △꿈·끼, △창조, △도전, △희망을 제시했다. 이를 △꿈과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 4개 핵심 전략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중학교 5곳 중 1곳 올해 자유학기제 시행

올해는 지난해 도입한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20%(연구·희망학교 약 600교)로 확대 운영된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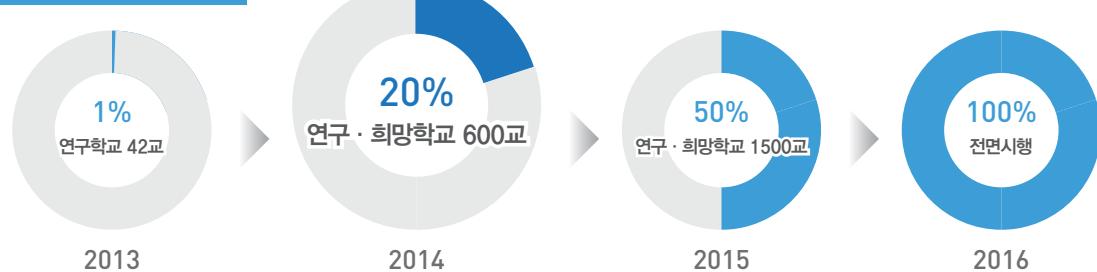
부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근 학교로 확산하는 한편 일반 학기와 고등학교까지도 꿈·끼 교육활동이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3 수능·중3 기말고사 이후와 학년말(12~2월) 죠약시기에 진로탐색·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꿈·끼 탐색기간’을 운영해 학교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인문·사회·과학 교과를 학습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올 상반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15년 중에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해 교과서 체제는 근본적인 개선에 나선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집필·검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사 교과서는 공론화를 통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한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체육 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독도 교육 강화 및 다양한 국토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언어폭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학교별 PC·스마트폰 기반 익명 신고·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 바른언어 사용교육 등 학생 언어문화 개선과 사회 전체가 동참하는 인성교육 운동도 병행하여 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폭력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연극·뮤지컬 등 체험형 예방교육과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이 스스로 폭력의 심각성을 체험·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수 증감 등을 고려한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도 마련된다. 교육평가 시기와 지표를 개선해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연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에듀파인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서버를 확충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설립·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로 창조인재 양성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인문학 연구 진흥과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지자체가 연계해 인문도시를 확대(13년, 5개→'14년, 15개)하는 등 인문학 대중화를 지원하고, 올 10월에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해 인문학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창조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ICT를 활용한 인문학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인문학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인문브릿지(Human Bridge) 사업' 신설, 인문지식의 이야기산업과의 연계 등을 추진한다.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14~'16년)을 통해서는 대학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산학협력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기술·아이디어의 초기 사업화를 지원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사회로 확산하고 고용창출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휴학제·창업학점교류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해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창업강좌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도입한다.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모형(ESG)에 학생창업 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창업을 격려해 창업가 정신을 대학에서 사회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대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산업계가 요구하는 시제품 수준의 작품을 학생들이 함께 설계·제작해보도록 하여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협업 및 실무능력을 육성하는 교과목) 작품을 경매식으로 거래하는 시장(CAM: Capstone designs Auction Market)을 조성하고 학생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4년, 2,031억 원)을 시행하는 한편, 지역인재전형 도입, 공무원·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 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창업후학제·창업학점교류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해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창업강좌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도입한다.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모형(ESG)에 학생창업 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창업을 격려해 창업가 정신을 대학에서 사회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도 본격화된다.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구조개혁과 대학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5등급으로 분류, 차등적인 정원감축을 통해 17년까지 총 4만 명을 감축한다. 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로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과 자발적 퇴출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중심 직업교육체제와 평생학습체제 구축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 학습모듈 개발을 확대한다. NCS는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해 표준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산업계·법부처 협업으로 청소년의 흥미가 높은 10대 분야를 선정해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계 주도로 학력에 상응하는 직무능력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마이스터고는 더욱 활성화한다. 우선, 산업인력 수요부처가 지원하는 부처연계형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등 고졸 취업 확대를 지원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 고졸취업자의 후진학 성장경로를 다양화한다. 아울러, 고용부·중기청 등과 협업해 기업의 후진학 장려풍토를 조성하는 등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한다. 전문대학은 고등 직업 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 전문대학(14년 2,696억 원)을 선정함으로써 산업분야가 요구하는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지원한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최신기술 학습 수요 등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운영하고,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설립해 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등 전문기술인력이 보유한 고숙련 기술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100세, 인생 3모작 시대를 맞아 생애단계별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 망'과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해 생활밀착형 평생학습을 만들어 간다. 특히, 누구나 최고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양질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교육·입시 불안 해소로 행복교육 실현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시행된다. 농산어촌에 ICT 콘텐츠 확충(13년, 300교→14년, 2,000교)과 1군 1우수중학교를 육성(13년, 20교→14년, 50교)하는 한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해서는 숙려 기간 지원을 의무화해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다문화학생은 예비학교 확대와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재능계발을 돋고, 탈북학생은 대안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비 걱정 없는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비 인상을 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 1, 2학년생 누구에게나 오후돌봄을 제공한다.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자녀는 저녁돌봄까지 이용 가능하다.

강화해 취업 지원 및 조기 사회 안착을 돋는다. 아울러, 특수학교 신·증설과 교사 증원 등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습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국가 영재교육프로그램 기준' 개발을 통한 영재교육의 질 제고를 추진해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비 걱정 없는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비 인상을 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 1, 2학년생 누구에게나 오후돌봄을 제공한다.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자녀는 저녁돌봄까지 이용 가능하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은 대폭 확대하고 성적기준을 완화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신설하고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병행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시험·입시 등 평가가 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해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사립 초의 영어 몰입교육 금지, △쉬운 수능 출제, △수능영어 심화과목 배제, 수능 시험지 분량 축소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

입·대입 사전 예고기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입전형은 사전예고기간 확대(1년→2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2년 6개월 전(종전 1년 6개월 전),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10개월 전(종전 1년 3개월 전) 발표하고, 변경을 제한키로 했다. 대학의 입시 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14년, 610억 원)을 추진하고, 학교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교육 유발하는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경우 0점 처리하는 등 외부스펙 반영을 제한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강국으로서의 발전경험을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15.5)와 전략적 교육 ODA 추진을 통해 세계와 공유하고, 한-월드뱅크 공동연구·세미나(14.11)를 추진해 창의교육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 학별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축 등 중장기적으로 '교육체계의 근본'을 탄탄히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꿈·끼교육의 시작이 가져온 변화와 희망의 새싹이 사회 곳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국민의 행복교육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

대학과 기업의 만남, 산학협력으로 창조경제 이룬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

● 산학협력이란?

대학과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및 기업(산업체)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 산업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대비한 현장 적합성 높은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며,
- 기존의 전형적인 대학교육에서 진화한 사회변화와 산업 수요에 부응한 대학교육 · 연구로 산업체와 함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 전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가 대두되면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아이디어, 창의적 사고를 통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이제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 · 자본으로부터 지식과 기술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창조경제 생태계가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

창조경제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창의적인 인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성패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최선의 길로 안내하며, 특히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지난 연말, 교육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는 대학에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산학협력단'을 도입한 지 1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지난 10년간의 산학협력 진흥을 위한 노력을 돌아보고 성과를 계승하며 창의성과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

구체적으로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체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양성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2단계 사업('14~'16)을 통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산업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종합하여 작품을 기획, 설계, 제

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최선의 길로 안내하며, 특히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작하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며 전문트랙, 연계전공 등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이 더욱 강조된다.

또한, 여러 학문 분야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협력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인력 교류형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연구 등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기업 창업 등을 통해 고용창출까지 연계되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이란?

공학계열 학생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대학에서 졸업 시 졸업논문 대신에 학부과정 동안에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설계·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산업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는 종합설계교육 프로그램 즉, '창의적 공학설계'수업 교과목을 말합니다.

앞으로 대학에서는 공학계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문화콘텐츠, 예체능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에 대응한 문제해결형 융·복합형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보다 많이 개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② 인문사회 · 예체능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기존의 산학협력은 이공계를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발상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창조경제에서는 인문사회 · 예체능 분야까지 산학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기초교양교육이 다시 강조되고 동시에 인문사회나 예체능 분야와 융합된 융합전공 개설이 장려된다. 전통적으로 이공계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출판 · 산업디자인 등 비이공계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비즈니스 과정상 생산과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산학협력의 한계를 넘어서 마케팅과 사업 기획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콘텐츠 분야 등 인문사회와 예체능 분야에까지 걸친 다채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

③ 신산업 · 신시장을 개척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기술 융복합, 산업구조 변화, 사회문화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BK21 플러스 사업에서는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디자인, 관광, 건강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정보보호 등 국가발전전략 분야의 석 · 박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지역대학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해당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혁신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그리고, 전문대학에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숙련 기술인들이 보유한 체화된 암묵적 지식을 명장기술서(名將記述書)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기술과 지식이 계승 ·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④ 산학협력 대상 확대

산학협력에 있어 대학과 협력하는 산업체의 범위를 확장한다. 제조업, 서비스 산업 외에도 농어업인, 지역 협동조합까지 협력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과도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기술과 아이디어, 고급 인재가 농어업과 관광 산업, ICT 기술 등을 결합시켜 전통적 1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고, 대학이 지역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여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면서 나눔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융합 · 신산업(예 : 농어업과 IT, BT, NT 등 협업) 사례

- ○○대학교(학교기업) '약고추장' → 지역 특산품인 고추, 쇠고기, 꿀, 배즙 등을 재료로 활용하여 신상품 개발
- ○○대학교(학교기업) '자두와인' → 최초 자두발효기술 개발, 자두 농가의 소득 증대

⑤ 인력교류 및 지식 공유 활성화 문화 조성

대학과 기업 간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지식을 나누고 또 더 키울 수 있는 문화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 중소기업과 산학공동연구과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특히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역량과 특히 등 지식재산권, 창의적 아이디어, 고급 인재 등의 정보와 지역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 기술 수요를 매칭시킬 수 있도록 기술 복덕방 형태의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⑥ 글로벌 산학협력 정책교류 활성화

산학협력이 지역과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산학협력 정책 동향과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포럼을 올해 발족할 것이며, 우리 대학이 해외의 우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점 교류 및 학생 · 교수 등의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현장실습과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해외 대학 또는 해외 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 차원에서도 활성화될 것이다.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가칭)‘국경없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학생

기존의 산학협력은 이공계를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발상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창조경제에서는 인문사회·예체능 분야까지 산학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류를 통한 (가칭)‘국경없는 창업동아리’ 활동도 가능해질 것이다.

⑦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대학 내에 있는 창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창업 관련 학과 지원을 확대하여 예비창업자를 양성한다. 또한, 창업동아리 지원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산학협력 엑스포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창업에 도전하고 격려하는 창업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나갈 것이다.

⑧ 지역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하여 창업교육을 통해 발굴된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광역 시·도 차원에서 지역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과 기술지원을 총괄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⑨ 산학협력단 혁신 역량 및 통합조정 기능 강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단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상에 산학협력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⑩ 공학교육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

현장적합성 높은 엔지니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우리 공학교육이 여전히 이론 위주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어 산업체 수요에 맞는 현장형 교육과 실용적 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 교원의 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산학공동연구를 촉진하도록 한다.

산학협력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 기대

이와 같이 10대 과제를 추진하여 학생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우고 산업체 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으로 거듭나고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 역량이 강화되어 기업은 원하는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아이디어 창업 등이 활성화되면 지역이 발전하고 다시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다시 산학협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가 조성되고 대학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대학의 창의적 인재가 지역에서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⑩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아이들의 꿈을 위해 모두가 나선다!



우리 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오케스트라**,
뮤지컬 강사를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공연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 방송국에서도 PD, 방송작가 등의
꿈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흥 경장입니다.
경찰관이 꿈인 학생들은 자유학기 동안
경찰청과 함께 직업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환경이 넓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각 부처와 민간 기관이 협력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로 현장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 체험이네!
이 정도면 믿어도 되겠어.

맞아요. 우리아이들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교육부 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 부처 간, 정부-민간 간 소통과 협업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각 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유학기제를 지원합니다.
- 교육부-교육청-안전행정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대국민 교육민원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부처 내부와 교육청, 국립대학, 공공기관과의 영상회의 장비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의사소통이 활발해집니다.

서남수 장관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창의교육,
사람됨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공교육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남수 장관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sseomoe>



2월 3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인 서남수 장관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선포식'에 참여해 개회사를 전했다.

서남수 face book

“비전에 담긴 소명처럼 위원회가 활동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Jihye Bae 평화와 꿈! 인류에게 꼭 필요한 공기와 소금같은 비전이네요^^](#)



2월 4일

서남수 장관은 제1호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인증 받은 서울 구로구 솔트웨어 인증파 제막식에 참석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로, 6개월~4년까지 체계적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력) 등을 인정하는 제도다.

서남수 face book

“이 제도는 스펙과 학벌 없이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를 앞당기는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규서 인성에 배점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ㅋ](#)

2월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종회에 참석한 서남수 장관



2월 7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서남수 장관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서남수 장관



2월 17일

서울 용산구 지역아동복지센터인 혜심원을 방문한 서남수 장관

서남수 face book

“혜심원 안팎을 구석구석 다니며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놀아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른 손이 필요한 어린 아이부터 청년 티가 나는 고등학생까지 한 가족을 이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 [♥좋아요!](#)

↳ [♥좋아요!](#)



인천 부광고등학교

꿈을 등대삼아 미래의 바다로 나아간다

누군가 일반고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부광고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일반고의 활로를 찾아 나섰다. '꿈'이 분명하다면 학교생활이 목적지 없는 항해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 나가면서 학생들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

독서삼매경에 빠진 학생들, 부광고는 모든 교육은 독서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다독다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광고(교장 지호경)는 특색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고교생들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맞춤형 수업, 자기주도 학습, 팀 프로젝트 등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기르는데 힘을 쓸고 있다.

부광고의 A·C·E 창의적 체험활동은 모두가 인재가 되는 교육,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All), 교실을 넘어서 지역사회 지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Connect), 끼와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 및 전문성을 제공(Expert)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지호경 교장은 “365일 교실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꿈을 키우고 끼와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사회와 연계 관심분야 역량 키운다

부광고의 진로 프로그램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모두가 인재가 되는 교육을 위해 교과와 관련하여 수업시간 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그룹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에게 활동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학교측의 세심한 배려다. 특히 학생들이 진로 활동 등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꿈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동일한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를 만들어 활성화시키고 있다.

진로활동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차오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부광고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모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차오름 프로젝트’는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돋는 협력 프로젝트 학습으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흥미와 관심 분야의 주제를 정한 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주제별로 모인 아이들이 매주 1시간씩 모여 의견을 나눠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도교사제를 두고 있는데, 차시별로 활동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지도교사가 수시로 피드백을 합니다. 학생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관련 기관을 탐방하기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서혜승 교사의 설명이다. 때로는 프로젝트 활동에서 한 발 나아가기도 한다. 주제와 관련된 교내외 대회가 있으면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학생들을 독려하고 있다. 차오름 프로젝트는 학습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에게 흥미와 주도성을 높여준다. 지난해



부광고 1학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차오름 프로젝트’, 학생들이 야외에서 삼삼오오 모여 토의를 하고 있다.

1학년생 401명 전원이 79개의 주제탐색 활동을 펼쳤다.

김진성(2학년) 학생은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해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차오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평소 누군가와 모여 함께한다는 것을 귀찮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학습은 공통된 주제로 모인 친구들과 협동하며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협력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꿈을 향한 도전과 노력 ‘어깨동무 스터디’

꿈과 목표가 생긴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그 역량



꿈이 분명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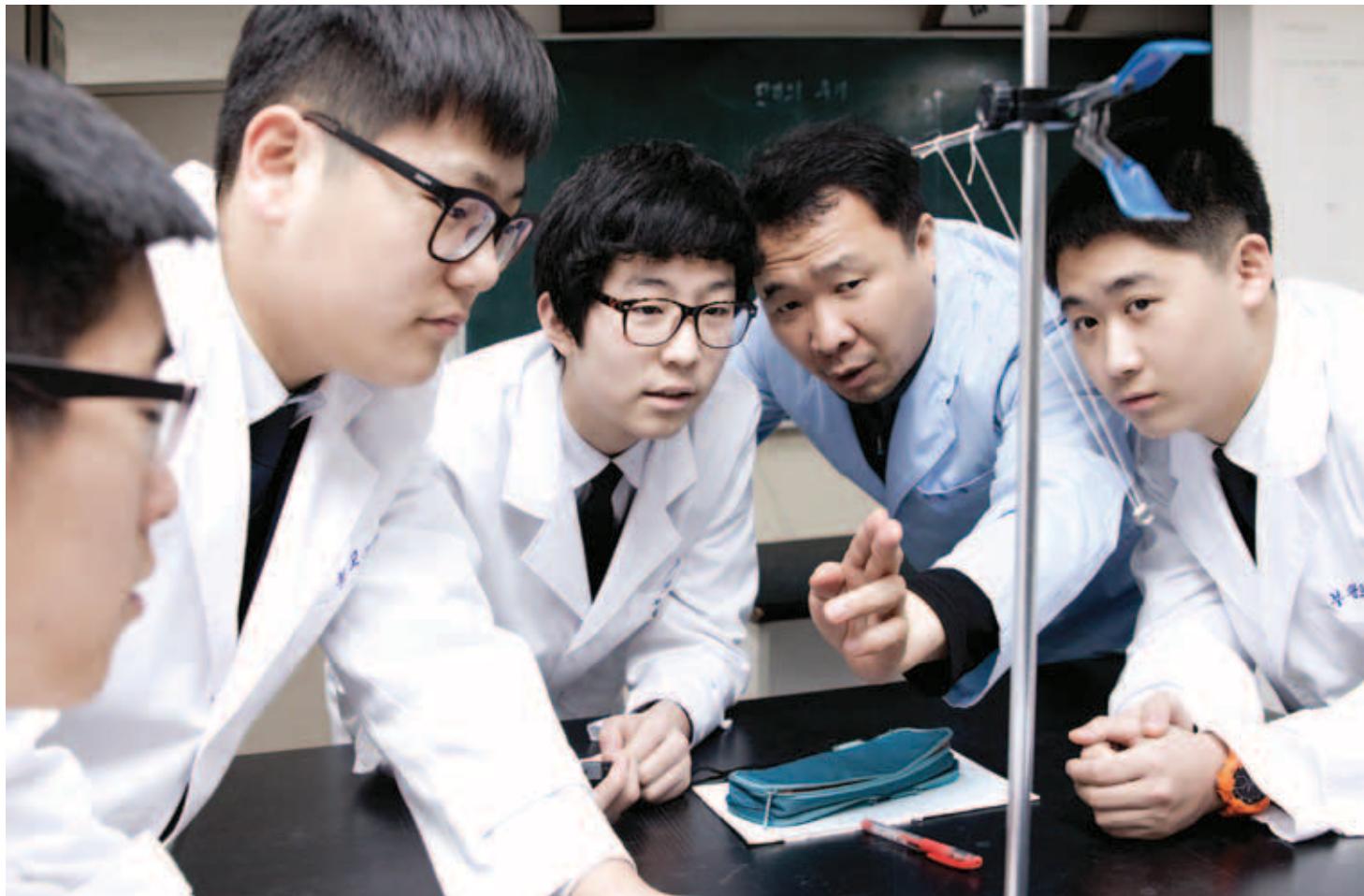
을 계발하고 있다. 부광고에는 교과연계형 학술 동아리, 특기·적성 계발 동아리, 청소년 단체 동아리 등 73개의 동아리와 어깨동무 스터디 등 창의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차오름 프로젝트'가 1학년생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어깨동무 스터디'는 학생들의 역량 계발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어깨동무 스터디'는 1년간 프로젝트 진행 방식이 익숙해진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 학급에 상관없이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뭉친 스터디 그룹이다.

학생들은 팀을 조직하는 일에서부터, 연구주제 정하기, 연구설계하기,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도출, 프로젝트 결과물 작성 등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끌어내어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적용하다보니, 관심 분야의 연구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창의력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P.C.S.' 스터디에서 활동하는 우종문(3학년) 학생은 "1학년 때 차오름 프로젝트를 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스터디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다. 각 반에 흩어진 친구들을 한 명씩 포섭(?)해 팀을 꾸려 함께 실험하고 체험활동하며 1년을 알차게 보냈다."고 말했다.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저탄성 실험이고."라며 여섯 명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지난 해 하반기 1·2학년생 가운데 167명의 38개 팀이 어깨동무 스터디에 참여하였다. 올해에는 아직 신청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선생님들에게 지도교사를 맡아달라는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기도 한다.

내실있게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꿈을 바꾸거나 구체화시키기도 한다. 과학탐구 활동이 많아서 '아르카디아' 과학동아리에 들었다는 박형진(2학년) 군은 수학자가 꿈이었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박 군은 "여러 가지 과학실험을 하면서 이 분야가 제 적성에 맞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는 에너지 공학,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1

4

2

3

1. 신기한 탐구활동이 넘쳐나는 과학 동아리에서 진자의 주기실험이 한정이다.
2. 부광고 지호경 교장
3. 아프리카에 학용품 보내기 등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아이콘' 봉사동아리 학생들
4. '어깨동무 스터디'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지방적으로 모여 팀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스터디 그룹, 'P.C.S' 스터디 학생들과 부광고 선생님들.

한편, 기자가 학교를 방문한 날, 우연히 교실 한켠에 수북하게 쌓인 상자를 보게 됐다. 호기심에 출처를 물어보니, 봉사동아리 ‘아이콘’ 학생들이 전국에서 수집한 학용품이라고 했다.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학용품을 모아 보내주는 활동을 접하게 됐다고. ‘아이콘’ 학생들은 교내 홍보활동을 통해 학용품 모집 계획을 알렸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집에서 잠자는 학용품들을 수집하여 1차로 아프리카에 보냈다. 현지에서 감사하다는 장문의 편지도 받았다. 감동 그 자체였다.

‘아이콘’ 학생들은 활동범위를 넓혀 SNS를 통해 학용품 모집 계획을 알렸고, 현재 속속 학교로 학용품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모은 학용품도 곧 아프리카로 보낼 예정이다.

부광고는 ‘아이콘’ 외에도 1인 1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나눔에 참여한다. 지구촌 사랑 나누기, 세계시민 학교 운영, 도서관·대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회·아동복지 시설 봉사, 교내외 멘토링 등 다양하다.

‘아이콘’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준(3학년) 학생은 “지역 아동센터 봉사나 학용품 기부에 참여하면서 경험이 확대되는 기분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멘토링할 때 국가보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직접 보았다. 앞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을 갖고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축구협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명구(3학년) 학생은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이라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고교생들

부광고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가는 한편, 자기주도적 코칭 시스템을 통해 학습력을 높이고 있다. 방과후에는 夜(야)심찬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학년/무학년제로 수준별 강좌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멘토링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학습력을 높이는 활동 중 하나. ‘후배사랑 멘토링’은 부광고 졸업생이 멘토로 참여하는데, 5명 내



외의 소그룹을 구성해 문제풀이식보다는 공부법에 대해서 지도한다. 특히 선후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서로 진로와 진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면서 후배들의 학습 동기를 키우고 성적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다. 그밖에도 동학년 학생이 멘토-멘티가 되는 ‘친구사랑 멘토링’도 운영하고 있다. 서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습내용이나 방법, 시간 등은 서로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멘토링 후에는 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그 시간만큼 멘토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모든 교육의 시작이자 인성과 창의성 함양의 핵심인 독서 프로그램으로 ‘다독다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교생이 주당 1시간씩 학교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수업하고 있으며, 지역도서관과 연계하여 ‘인문학 아카데미’ 6회, 문학기행, 저자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심현자 교사는 말한다.

“우리 학교는 독서를 중시합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독서, 토론, 논술의 다독다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거죠. 진로와 꿈이라는 목표가 설정된다면 학생들은 학교를 베이스 삼아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스스로 공부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준 광양제철초등학교 교사

국악은 맑은 동심을 담는 그릇

국내 최초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을 이끌며 국악교육의 꽃을 피운 최창준 광양제철초등학교 교사. 그가 교단에 서 온 지난 34년은 국악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악을 배우면 자긍심이 생긴다.” 그가 말하는 국악교육의 힘이다.



“자네, 단소 한번 배워 볼 텐가.”

30여 년 전 작은 시골학교 교장선생님의 한 마디는 한 교사를 열혈 국악교육 전도사로 이끌었다. 국내 최초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며 국악교육의 꽃을 피웠던 최창준(62) 광양제철 초등학교 교사. 그가 교단에 서 온 지난 34년은 국악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은 사람 됨됨이를 가꾸는 일이라 생각해요. ‘올바르고 바르게’를 최종 목표로 교사들은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하지요. 우리의 얼이 담긴 국악은 아이들의 심성을 곱고 바르게 하며, 아이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도록 이끄는 힘이 됐어요.”

올 2월 정년퇴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됐다는 그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국악’을 심어준 일이 가장 뿐듯 한 일이라며 환하게 웃는다.



‘개량단소’로 10년간 국악을 가르치다

강원도 청천산중의 작은 시골마을. 교사로 첫 발령을 받은 양구군 임당초등학교에서 그는 우리 전통 악기인 단소에 대해 새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노래와 그림 등 다방면에 대한 지도가 벅차다.”고 생각할 무렵, 교장선생님의 권유에 귀가 솔깃해 진 것. “지역 어르신들이 단소를 잘 부니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보면 어떨까.”는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 게 첫 시작이었다.

지금이야 단소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돼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단소는 매우 생소한 악기였다. 지역 어르신들은 “내가 악기를 만들어 주마.”하고는 PVC 파이프를 잘라 구멍을 뚫고 뚝딱뚝딱 악기를 만들었다. 최 교사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틈만 나면 어르신을 찾아 단소를 배우며 지역 곳곳을 돌아 다녔다. 그리고 한 달 뒤,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일은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그 또한 처음엔 난관에 봉착했다. 어린 아이들은 첫 음을 내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이 전통악기 한 가지는 다룰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최 교사의 고민은 깊어졌고, 고민은 ‘개량단소’ 개발로 이어졌다. 싸인펜심을 뺀 대의 끝을 불로 가열해 납작하게 구부린 다음 단소 취입구에 붙이니, 누구나 쉽게 단소 소리를 낼 수 있게 됐던 것. 아이들은 “야! 재밌다.”며 너도 나도 단소 배우기에 나섰고, 이듬해 학습자료 전시회에서는 개량단소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국악교육’ 전문



1. 최창준 교사는 국내 최초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국악 관현악단을 창단하는 등 아이들을 위한 국악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2. 최 교사는 직접 만든 가락악기 익힘책, 손글씨로 하거나 써 내려간 익힘책에는 악기 연주 방법과 연주 자세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가라는 고리표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배우기 힘든 전통악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칠 수 있도록 고민해 왔지요. 대표적인 결과물이 ‘개량단소’라 할 수 있고요. 서양음악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전통음악은 너무 생소할 뿐 아니라 단절돼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지 못하면 커서도 관심이 생기긴 어렵지요.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중요해요.”

초등 국악관현악단 창단을 이끌다

그의 열정은 초등학생으로 이뤄진 국악관현악단 창단으로 이어졌다. 최초 43명의 학생들과 국악관현악단을 구성했을 때는 모두들 불가능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며 헛고생 하지 말라는 말을 뒤로 하고, 악기 구입부터 지도교사 섭외에 이르기까지 밸로 뛰며 모두를 설득했다. ‘잘못되면 사표 써라’는 압박에도 끝까지 밀고 나가 결국 창단했을 때는 전국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시골 아이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국악을 배우면 자긍심이 생긴다.”는 건 그가 국악을 지도하면서 느껴온 국악교육의 힘이다.

국악교육하면 ‘최.창.준’이란 이름 석자를 떠올릴 때, 전남 광양제철초등학교는 국악 특기교사로 최 교사를 초청, 60인조 국악관현악단을 2개 교에 창단했다. 단원들과 함께 일본 와카시마 현장의 초청으로 6년간 교류 공연을 다닐 때 기억은 아직도 그의 기슴을 벅차게 만든다. 국악경연대회에서 지도한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동안 수상한 지도교사상도 17회. 그는 더 나아가 국악기에 흥미를 갖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재 개발에 나섰다. 스스로 탐구하는 국악교실 4권(기초,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과 국악 가락악기 교사용 지도서 1권, 가락악기 익힘책 6권 등을 첫 장부터 끝까지 만들었다. 서양 악보로 그려진 동요를 우리 전통악보인 정간보(井間譜)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세종대왕 때 만든 정간보는 음의 길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음높이를 표시하는 유량악보(有量樂譜)로 서양의 악보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재가 한자로 표기돼 있고 옛 문



광양제철초등학교 1학년 담임반 아이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최창준 교사





서처럼 세로로 읽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요. 동요를 정간보로 옮기면서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고 세로 표기를 가로로 읽을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어요.”

쉽게 배우는 ‘전통악기’ 발명 지도

아이들이 배우기 불편한 악기도 개량이 필요했다. 그는 악기를 쉽게 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악기는 연주하고 싶어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전통악기가 국악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겼다. 그는 과거 ‘개량단소’에 착안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전통악기’ 발명에 나섰다. 재활용품으로 해금을 만들어 보거나 건반을 이용한 인형극은 주변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96년부터 7년간 매년 전통악기 발명품으로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진기록을 세운 건 우연이 아니다. 그가 국악교육과 함께 발명교수가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건 이 때문이다.

“옛것 그대로 전통적인 방법만 고수해서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다가설 수 없어요. 교재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지요. 전통악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개량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재나 자료가 부족한 건 예나 지금이나 개선돼야 할 점입니다.”

그는 “국악이 어렵고 생소하게 여겨지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말한다. 어릴 때부터 국악에 대한 소양을 쌓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교육은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일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린 것이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요, 우리가 세운 목적이 옳은 것이면 언제든지 성공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지요. 목표만 바르다면 결과는 그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을 키우려면 올바른 교육 목표를 세우면 되는 것지요. 교사가 목표를 바르게 세웠을 때 아이들은 올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국악교육에 매진한 가장 큰 이유 또한 우리의 얼과 문화를 간직할 때 ‘올바르고 바른’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퇴직 이후의 ‘제2 인생’ 또한 국악교육에 헌신할 뜻을 비쳤다. 앞으로 1년간 국악기를 배워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을 대상으로 전수할 계획. 이를 위해 중국어와 영어도 열심히 공부 중이다. 특히 향피리를 개량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생겼다.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는 국악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처럼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

이경원 서정초 교사의 ‘주제통합 수업’

가장 중요한 수업방법은… 들어주고 들어주고 들어주자

이경원 경기 고양 서정초 교사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 낸 다음 그 과목을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 가는 수업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그의 수업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수업의 설계나 준비는 교사의 몫이지만, 그 수업을 이끌어 가는 건 아이들이며 그 중심에 ‘배움’이 있다.

“부모님께 어떤 마음으로 졸업 공연을 보여드려야 할까? 우리 한 번 글로 써보자.”

지난 2월 10일 경기 고양 서정초등학교 6학년 1반. 블록타임 수업 80분간 ‘축제’를 주제로 졸업 공연 준비가 한창이다. 이경원(42) 교사는 그간 준비해 온 반 공연에 의미를 더하는 과정이 이날의 수업이라고 소개한다.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축제’란 주제는 졸업식을 치러야 하는 6학년 아이들과 의미 있는 졸업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주제입니다. 축제 속에 6년 동안 담아두었던 아쉬움, 기쁨, 슬픔, 고마움, 미안함 등을 모두 표출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함이지요.”

모든 교과를 9개 주제로 통합 재구성

이 교사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과목(기존의 교육과정의 성취기준들이 합쳐지거나 반영된)을 만들어 낸 다음 그 과목을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 가는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른바 ‘주제중심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것이다. 서정초는 4년 전부터 영어, 수학, 음악을 제외한 모든 교과를 통합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운영 중이다. 올해 6학년의 경우, 1년간 9가지 주제에 따라 모든 수업을 재구성, 이 교사를 주축으로 6학년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간 수업계획을 짰다(표 참조)。

‘축제’는 6학년의 마지막 주제. 총 58차시로 진행되는 이 주제에는 국어, 도덕, 미술, 체육, 실과, 청체 등의 성취 목표가 융합돼 있다. 예를 들어, 국어 7단원 ‘즐거운 문학’에서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이해는 공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활동에 녹아 있다.

“교육과정을 통한 수업 바라보기 활동이 제 수업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위 차시에서 벗어나 큰 교육과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수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 국가수준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확실히 가지고 가면서도 수업의 진행방향은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야해요.”

이 교사의 수업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수업의 설계나 준비는 교사의 몫이지만, 그 수업



졸업 전아제를 앞두고 아이들과 반 공연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진 이경원 교사



이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확인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날 수업에서 아이들은 반 공연 연습을 하기 전 공연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가 쓴 글 속에서 공통된 단어를 추출해 낸다. 가장 많이 쓰인 ‘하나’, ‘최선’, ‘감사’, ‘공동체’, ‘성장’이란 단어. 이렇게 추출한 대표 단어는 공연 중간 부모님께 전하는 메시지로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이 교사는 “공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교사인 제가 했지만 어떤 식으로 공연이 될지는 아이들이 정하고 준비한다.”며 언제나 수업을 이끌어 가는 건 학생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이전에 ‘왜’를 스스로 물어라

“내가 자라고 정든 이 거리를 /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 이렇게 나는 떠나네 / 더 넓은 세상으로 ♪ ♪ ♪”

김동률의 ‘출발’이란 곡을 반 공연으로 정한 아이들. 키보드를 치며 기타와 합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축제’를 주제로 꾸준히 활동해 왔기 때문에 수업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아이들이다. 조한희 교사는 “축제를 주제로 출발 여행인 올레길 걷기, 공연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6학년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마음에 새기게 됐고, 또 다른 출발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한다.

“예전엔 교과서가 중심이 된 수업을 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지 고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이전에 내가 ‘왜’ 이것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성찰이 더 중요해졌고 그로 인해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어요. 큰 틀을 가지고 수



업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아이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말 진심을 다해 들어줄 수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다 하게 되다니 정말 뿌듯해요.”란 말을 가장 자주 듣는다는 이 교사. 그는 칠판에 적혀있는 ‘들어주고 들어주고 들어주자’는 문구가 가장 중요한 수업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둠별 경쟁이 없는 건 그 때문. ‘상’을 주기보다 하고 싶은 이가 나서서 진행하고 그때그때 아이들이 정하는 게 끝이다.

〈표〉 2013년도 6학년 주제중심교육과정 계획(안)

주제	학습기간	핵심역량
나 너 그리고 우리	3월 4일 ~ 4월 5일	자기관리능력 / 시민의식 / 의사소통능력 / 정보처리능력 / 진로의식
소중한 분들	4월 8일 ~ 5월 10일	생태감수성 / 자기주도학습력 / 문제해결능력 / 범지구적 소양
지혜로운 우리민족	5월 13일 ~ 6월 12일	정보처리능력 / 자기주도학습력 / 문화예술감수성 / 의사소통능력
자연은 주인 사람은 손님	6월 12일 ~ 7월 9일	생태감수성 / 시민의식 / 문화예술감수성 / 자기관리능력 / 창의력
진실과 거짓	7월 9일 ~ 7월 26일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정보처리능력 / 자기관리능력
아! 대한민국	8월 23일 ~ 10월 2일	시민의식 / 자기관리 / 의사소통능력 / 자기주도학습력 / 대인관계
지구별 세계일주	10월 7일 ~ 11월 14일	정보처리 능력 /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 / 범지구적 소양 / 문화예술감수성
행복한 미래	11월 16일 ~ 12월 16일	진로의식 / 문화예술감수성 / 자기관리 능력 / 시민의식
축제!	12월 16일 ~ 2월 14일	문화예술감수성 / 창의력 / 진로의식 / 생태감수성



김동률의 '출발'을 반 공연으로 준비한 6학년 1반 아이들이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다.
'축제'를 주제로 한 주제통합 수업

〈그림〉 6학년 '축제' 주제의 수업지도안 예시



수업지도안은 학생들 반응까지 고려하며 자세히 만들지 않는다
〈그림 참조〉. 수업 차시 주제에 대한 마인드맵과 수업의 구조, 관련
교과 등을 정하고 그 외의 것은 수업의 흐름에 맡긴다. 그렇기 때문에
에 교사가 수업시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건 가장 중요하다.

올해 학습연구년제 교사로… 전국 교사와 만나 '배움' 연구

올해 교직경력 16년차인 이 교사는 2010년부터 주제통합 수업을 시도하고 있다. 6학년 학급을 담임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학급운영과 교육과정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이 주제통합 수업이다.

이 교사는 교사협의회를 통해 방학 3~4일 동안 학년 교사들과 모여 수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처음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중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의 학업성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이 교사는 "6학년을 지도하면서 큰 아이들 간 문제나 학교 폭력 문제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올해 교육부 학습연구년제 교사로 선정된 이 교사는 올 초에 주제통합 수업을 주제로 책을 발간하는 한편, 수업의 중심에 '배움'이 있다는 생각으로 전국 교사들과 만나 '배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경원 교사의 블로그 <http://blog.daum.net/leese34>)

단양지역 교사 사진동아리

재능기부로 졸업앨범 선물하는 ‘찍샘’

충북 단양의 한 소규모학교. 전교생이라고는 스무 명 남짓한 규모에 졸업생은 단 3명. 지금까지 졸업생들은 선생님과 전교생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졸업하기 일쑤였다.

단양지역의 교사 사진동아리 ‘찍샘’은 2008년 디지털카메라가 한창 보급되던 시절, 사진 찍기에 관심있던 초등 교사들이 모여 ‘단양영상교육연구회’를 조직하면서 출발했다. 현재 백명 남짓한 회원들이 찍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경주, 안동, 영주, 울진, 동해 등 전국으로 출사를 다니며 함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다. 다양한 촬영 시도와 함께 촬영한 작품은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안목도 높였다. 그러던 중에 비용 문제로 졸업앨범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인근학교 소식을 접하면서 ‘찍샘’ 회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단양지역 6학급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졸업앨범을 직접 찍어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앨범촬영은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일상과 행동, 표정이 담기도록 하였다. 아이들은 친근한 이웃학교 선생님이, 혹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찍어주는 사진에 금방 경계를 허물었다. 촬영에 나선 선생님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장난치는 순간을 포착해 개인 앨범처럼 제작했다. ‘찍샘’ 회원들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의 졸업앨범을 제작하였다.

찍샘 회원들은 2012년부터는 각자의 학교나 인근학교 등에서 사진 촬영 봉사활동도 꾸준히 벌이고 있다. 교실 속 풍경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카메라에 담아 학급 홈페이지나 학교 앨범에 싣고,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교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진을 요청하면 직접 촬영하여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각 학교 사진동아리를 찾아가 사진 강의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출사도 즐기고 있다.

회원들의 이런 노력과 열정은 각종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2012 대한민국전체사진 공모전 대상(제천중앙초 김일순), 2013 우유급식 사진공모전 대상(어상천초 손문수), 2013 손 안 애서(愛書) 사진공모전 은상(가평초 조배근) 등 회원들의 수상 이력도 화려하다.

단양초 금기열 교사는 “천편일률적인 졸업사진이 아니라 학생들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결과물을 만들고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 회원 모두가 교사인 만큼 단순한 취미동아리를 넘어서 교육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전국 단위의 교사 사진동아리로 만들어 졸업앨범 촬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



1



1. 3. 졸업앨범 촬영 현장

2. 학교 사진동아리 학생들과의 즐거운 출사

한국장학재단

“능력과 의지만 키우세요 국가장학사업이 도와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국가가 위탁한 재원을 비롯해 재단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재원과 기업 및 독자기로부터 기부 받은 재원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가장학사업을 통해 약 320만 명의 학생들에게 약 5조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또 학자금 대출사업을 통해 약 570만 명의 학생들에게 19조원 이상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재단 출범 전 학자금 대출이자가 최고 7.8%에 달했으나, 현재 2.9% 수준까지 낮추어 학생들의 부담을 대폭 덜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하위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 책임지원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이 올해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된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자체노력 인정 비율을 대폭 상향했다. 지방의 우수인재가 지방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인재장학금도 신설했다. 이로써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정부재원장학금(3.7조원)과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약 2.4조원)으로 올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45%까지 경감될 것으로 재단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런 추이라면 '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까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병선 이사장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는 나라,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나라의 기반인 국가장학사업을 사명으로 부여받은 데 대해 크나큰 보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직원 모두는 국민과 모든 고객에게 신뢰받고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초일류 국가장학재단이 되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 해단식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나눔과 봉사로 우리사회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운용 규모에 비춰보면 이제 우리도 선진 복지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곽병선(71)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이 성장해 온 자취를 되짚으며 강한 자긍심을 나타냈다. 국가의 재원을 비롯해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재원을 운용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나눔과 봉사의 허브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분명한 비전도 제시했다.

곽 이사장이 지난해 5월 부임한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조직을 ‘나눔경영이사와 학자금사업이사’ 부문으로 개편한 것도 이 같은 의지에 따른 것이다. 나눔과 봉사의 경영철학은 멘토링 사업(나눔지기 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생 지식멘토링은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거나 멘토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대학생에게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중·고생들에게는 우수한 대학생으로부터 비용 부담 없이 학습지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의 호응도 좋아 2010년 6월 985명에 불과했던 멘토가 현재는 6,00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4년간 누적 멘토 인원도 1만5,165명에 육박한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도움을 주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눔과 봉사의 허브역할로 우뚝

곽 이사장은 “21세기 인재를 육성하는 최고의 전략으로서 멘토링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학생이 내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은 물론, 이들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나눔의 길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더욱 의미있다.”고 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나눔봉사 허브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으로 소액채무 때문에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을 구제하기도 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부금 약 3,800만원으로 198명의 신용유의자들을 지원한 것이다.

이밖에도 1사1촌 결연식을 통해 농촌일손돕기와 농산물작거래 등 교류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용산 서계구의 만리시장과 도 1기관 1시장 결연식을 갖고 매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부서별 1기관 1시장 잇기 및 물품 우선구매 등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곽병선 이사장은 '인간경영, 초효율경영, 윤리경영, 감동경영'을 강조한다. 특히 세계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기관을 지향하는 한국장학재단답게 그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수준 높은 윤리경영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행동강령과 각종 윤리지침을 정비하고 옴부즈만 제도도입 등 윤리경영 제도와 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전 직원이 청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학생,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각오다.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키워주자

한국장학재단은 그동안 대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더 빨리 더 쉽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곽병선 이사장은 편리성 이면에 있을 부작용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대출금이 손쉽게 지원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본격화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자칫 채무와 대출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직접 만나 상담하고 일정한 절차를 수행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의 지회나 분소 등을 전국에 설치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라고 말한다. 학자금 대출 행위도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곽병선 이사장이 모든 일을 교육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교육발전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곽 이사장은 1962년 내서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이래 50년간 교육현장부터 연구원, 대학 총장까지 두루 섭렵하며 오직 '교육'을 화두로 삼아온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위원회 간사장을 맡으며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가 주도해 설계한 2017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선행학습 억제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학입시 간소화, 진로 탐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자유학기제는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선하고 올바른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반세기 동안 교육에 투신해 온 교육자의 변함없는 일성(一聲)이다.

색 기회 제공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등은 현재 차근차근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만약 대통령인수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교육학자로서 평생 '주장'만 하다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교육적 소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기쁩니다. 시험 위주의 교육은 진짜 교육이 아닙니다. 시험 정답을 찾는 것은 기존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교육으로는 창조역량을 기를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토론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며 현장을 찾아 관찰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체험을 통해 얻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수학·과학점수는 높지만 수학·과학은 싫어하는 교육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곽병선 이사장은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때마다 이와 같은 철학을 굽히지 않았다. 전두환·김영삼·노무현 정부에서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시험 없이 내신으로만 대학에 진학하는 방안을 줄곧 주장하기도 했다. 그 소신이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으로 일단 선보이게 된 셈이다.

그를 일컬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할 정도로 곽 이사장은 스펙트럼이 넓고 은유하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주장할 정도로 교육자적 소신을 펴는 데는 타협이 없다.

곽병선 이사장의 호는 여의(如意). 말 그대로 한결같다. 그는 교육에 왕도는 없다고 말한다. 여일(如一)하게 기본에 충실한 것만이 교육이라고 믿는다.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자유학기제는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선하고 올바른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반세기 동안 교육에 투신해 온 교육자의 변함없는 일성(一聲)이다. ☺

금융감독원 '청소년 금융교실'

돈, 돈, 돈, 그것이 알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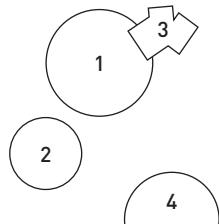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용어를 차치하고라도 예금 혹은 펀드에 가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 머릿속이 하얘진다.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경제관념을 갖고 있을까? '돈'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법. 금융감독원의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명한 돈 관리, 신용관리 등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들과 '금융교육 토클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금융교육과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 분야 직업군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금융감독원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청소년 금융교육… 현명한 금융소비자로 키운다

금융감독원의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청소년 금융교실과 현장 방문 금융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 금융교실은 청소년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쌓아 현명한 금융소비자로 자랄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에 진행된다. 금융교실에서는 금융이야기, 신용의 중요성,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의 내용으로 수업이 이뤄진다. 지난 1월에도 매일 80명씩 총 400명의 학생들이 금융교육을 받았다.

금융이론은 청소년기에 가장 필요한 저축·신용 등 돈 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학생들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기본과정은 올바른 소비습관을 기르기 위한 '청소년을 위한 재무설계' 및 신용의 중요성과 관리에 관한 '신용, My Life' 특강을, 심화과정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돋는 '금융시장과 금융감독의 이해' 및 신용관리와 금융상품의 이해에 관한 '올바른 신용관리 및 저축·투자' 특강으로 이뤄진다.

금융교육 외에도 한국거래소 견학, 금융보드게임과 더불어 우리나라 금융역사를 한눈에 익힐 수 있는 은행사박물관(우리은행) 견학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현장 체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기책임 투자원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보드게임 등을 통해 투자의 기본원리와 수반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



1. 현장 체험교육의 하나인 한국거래소 견학
2.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금융보드게임을 통해 투자의 기본원리를 가르친다.
3. 초·중·고교용 금융교육 기본교재
4. 교시를 위한 금융교육 강사양성연수 프로그램



다. 청소년 금융교실은 경쟁률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개별적으로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fss.or.kr>)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안내를 하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금융교실 외에도 학기 중에 단체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20~40명 규모의 단체인 경우, 3주 전에 금융교육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학생들의 눈 높이를 맞춘 커리큘럼과 금융보드게임 등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며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역사 등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금융마루' 전시관 등도 둘러볼 수 있다. '금융마루'는 금융감독원 본원 2층에 위치하며, 약 200m² 규모의 공간에 금융감독원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존, 금융감독원 수행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업무존 및 금융교육을 수행할 체험존 등 크게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도 한국거래소, 비씨카드, 현대카드, 금융투자교육원 등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투자의 기본원리에서부터 카드 운영방법, 카드 만드는 과정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하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운영팀장은 "자체적으로 커리큘럼과 현장체험 코스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금융교육이나 기관탐방이 있을 경우,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제한이 있지만 서울, 수도권의 학교에서 내방을 원할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증식비 등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교실 운영

또한, 원거리에 위치한 청소년들을 위해 각 학교에 찾아가는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방문 금융교육은 1~2주 전에 신청하면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 지자체, 도서관, 복지관 등에도 금융교육 강사를 파견한다. 초등학생 대상의 '현명한 돈 관리', '신용관리는 이렇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등의 주제를 비롯해 중·고등학생은 '금융의 이해 및 수입·지출 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을 주제로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 금융교육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카드, 증권 관련 금융회사 등과 어린이·청소년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해 '금융교육 토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청소년 금융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의 청소년 금융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요령을 가르치기 위한 것. 김동하 팀장은 "청소년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금융교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성인 금융교육은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청소년 금융교육은 미래의 금융소비자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과 건전한 소비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생활을 통해 습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고 교사들의 금융·경제 분야 이해력 증진을 도와주어 궁극적으로 학교 내에서 효율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금융교육 강사 양성연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금융교육 기본교재인 <생활금융>과 지도서를 각각 초·중·고교용으로 제작해 학교 현장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교육신청 : 02-3145-5957, 5976 ☎



프랑스 학생들이 꼭 갖춰야 할 7가지 능력

프랑스는 2005년 4월 23일 '학교의 미래를 위한 방향 제시와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명시된 미래지향적인 의무교육의 사명에 부응하기 위한 기본공통교육과정(Le socle commun de connaissances et de compétences)을 수립하여 2007년 9월 신학기부터 적용하고 있다. 새 교육법에 의하면 의무교육(만6~16세)은 지식의 다양화에 직면하여 진학이나 직업준비를 비롯한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들을 학생들이 이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이다. 또한 의무교육은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관을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핵심이 기본공통교육과정을 습득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갖출 자식과 능력의 보편적 기준 제시

2005년 규정된 새 교육법은 교육부 관료인 클로드 텔로 주관 하에 '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2003년 9월부터 1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백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13,000여 회에 이르는 대토론회를 개최한 결과보고서인 〈텔로보고서(rapport Thélot)〉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텔로보고서는 "학교는 모든 학생을 실질적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에서 확인한 국민적 신념이며, 의무교육이 이러한 신념에 부합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를 유발해서 실질적으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성과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해야 하며, △학교폭력과 반항적 태도들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교사와 학부모의 협조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반드시 습득해야만 하는 교육내용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향후 15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 계획에 의거하여 학교교육에서 이루어내야 할 교육혁



신의 항목들로 △의무교육을 통한 기본공통교육과정의 습득, △고등학교 계열 세분화와 실업계 부각,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계획 구체화, △사회적 계층 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 △각급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교사직의 중요성 부각과 재정의, △학부모와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 구축, △교육을 위해 연대하는 파트너 개발 등 8가지 실행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사전 작업에 기초하여 2005년 수립된 기본공통교육과정은 텔로보고서에서 제시한 교육개혁의 기본 취지와 8가지 실행방안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또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가 제안한 '평생 동안 배우고 교육받기 위한 핵심능력'과 PISA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프랑스 학교교육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도록 교육개혁을 이루고자 했다. 기본공통교육과정은 이렇게 마련된 것으로서 학생들이 의무교육기간에 배워야 할 모든 지식과 능력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989년에 개정된 교육법 '교육의 방향제시'와 비교해 볼 때 이전 법령에선 프랑스 교육제도의 기능에 관한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05년 기본공통교육과정이 중심이 된 교육개혁은 지식과 능력들을 습득하게 될 학생들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 개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공통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혁신의 의미

프랑스 기본공통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지식과 능력들을 담고 있다. (1)프랑스어(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2)한 가지 외국어(영어)를 구사하기 (3)수학 기본 능력 습득 및 과학 기술문화 습득하기 (4)정보통신 기술 익히기 (5)인문학적인 문화 습득하기 (6)사회인이며 시민으로서의 능력 구비하기 (7)자율성과 자기주도성 갖추기. 이중 (6), (7) 항목은 아직 학교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앞의 5가지 항목은 이미 현행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런 면에서 기본공통교육과정은 각 학년별 커리큘럼을 대체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각 과목과 과목별 교육과정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학교문화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기능을 맡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커리큘럼과 차이가 있다.

프랑스 기본공통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의무교육기간이 끝나도록 기초실력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단을 가

타인에 대한 개방성, 진실추구 욕구, 자신을 비롯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 호기심, 창의성 등을 익히며 이를 위해 예술, 문화, 체육활동을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는 시각의 변화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기본공통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혁신의 의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질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는데 있다. 사실 학교교육을 받고 과연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학교의 선발기능은 없는 것인지, 개별화 학습과 동반학습(학습보조)을 위한 방안들을 실천하려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되는 건 아닌지 등 기본공통교육과정을 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아울러, 모두의 성공을 목표로 삼다보면 학업성적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중학교에서 진로계획을 구체화한다면 너무 이른 나이에 진로를 확정해 버리게 하는 건 아닌지, 고교 계열의 재조정으로 현재 낮게 평가되는 실업계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두가 습득해야 할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졸업한다는 것은 교육을 공리주의적인 기능에 국한하여 바라보는 건 아닌지 등은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하지만 학생들 간의 상대적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국가의 사명인 의무교육을 통해 우리 시대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지식,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등을 학생들이 몸에 익히고 졸업하도록 학교교육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환기시켰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평생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개방성, 진실추구 욕구, 자신을 비롯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 호기심, 창의성 등을 익히며 이를 위해 예술, 문화, 체육활동을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는 시각의 변화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기본공통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혁신의 의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④

2014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출범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기대하세요!”



『행복한 교육』과 함께 현장 곳곳을 누빌 명예기자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달 18일 서울 방배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명예기자 연수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명예기자들은 한 해동안의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교육부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은 교육소식을 취재해 지면이나 웹진을 통해 전달하는 현장통신원으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명예기자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연수는 꽉은우 교육부 교육연구사의 축하인사 및 격려말에 이어 명예기자 자기소개,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활동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국 최초 청

소년 리포터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현광 경상북도교육청 공보 담당 장학사의 ‘교육홍보의 효과적인 접근방안’ 강의는 연수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단 명단은 아래와 같다. ☺

강성훈(한국항공대 대학생) / 국미경(경기 양일초 보건교사) / 권상기(천안일봉초 교장) / 권혁기(대구왕선초 교사)
 / 김종우(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무관) / 김주연(전북 성수초 교사) / 김철수(경남 양덕여중 교사) / 김해리(이화여대 대학생) / 박남범(천안쌍용고 교사) / 박민영(경기 광사초 행정실무사) / 손경애(전남 나주왕곡초 교사) / 손균욱(목포하당초 교사) / 신현태(전남 완도소안초 교사) / 양 진(인천신정초 교사) / 양지훈(안산공업고 교사) / 양희석(경기 부흥고 교사) / 우정민(경기 양평중 교사) / 유수경(전북학부모기자단 전북대표) / 이규배(서천 장항초 교사)
 / 이경화(광주일신초 학부모) / 이정규(원주상지여고 교사) / 이하성(한국미술협회 함안지부 지부장) / 임숙자(남원도통초 방과후 스피치 강사) / 장윤미(수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특수교사) / 정수진(강릉정보공업고 교사) / 최재성(서강대 대학생) / 최진영(경기 매류초 학부모) / 한명숙(수원서광학교 특수교사) / 한은경(경기 소래고 교사) / 함지원(대전성남초 교사) 등 총 30명



인류의 위대한 자원 ‘창의력’

- 창의적 인재 육성의 목적과 과제
-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학교 운영 사례
- 학습자의 수업 주도력을 통한 창의력 신장
-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사의 발문

title:



창의적 인재 육성의 목적과 과제

창의성의 원동력은 감정이다

글 |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남이 만든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내일을 만드는 사람.

후자가 창조적 인재인 것이다. 창의력은 어제보다 더 발전된 나를 오늘 새롭게 창조하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창조해서 모두에게 이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색다른 시각과 아이디어로 창업과 일거리 창출을 가능하게 해주고, 생활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창의력이란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다.

창의력의 중요성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계발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창의력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적 결과물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창의적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원동력은 가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이제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창의적 잠재력의 원동력은 가슴으로부터…

창의력 연구는 무려 170가지의 관련된 요소를 나열한다. 우선 창의력에는 독창성이 필수이지만 적절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세상에 둘도 없는 생각과 더불어 세상을 둘러보는 행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적절성은 사실에 기반을 둔 기초지식에서 비롯하지만 독창성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상반된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퍼지사고력이다. 지식과 사고력은 인지적 능력이며, 이를 활성화시키는 정의적 요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호기심, 낮은 성공률에 도전할 수 있는 모험심,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긍정심, 그리고 새로움을 수용할 수 있는 허심(여유)이다. '심'자가 들어있는 단어들에서 나타나듯이 창의력에는 머리의 영역만이 아니라 가슴(심적)의 영역도 중요하다. 논리와 이성의 세계가 감정과 감성의 세계와 만나야 한다.

창의력에 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첨단과학 연구가 입증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심장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신경체가 있으며 기억력, 창의력, 감정, 결정하기에 영향을 미친

창의력의 중요성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계발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창의력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적 결과물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창의적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원동력은 가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이제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 과학적 사실은 동양의 가치관과 절묘하게 일치한다. 결정하기에 필요한 사고력의 ‘사(思)’와 생각 상(想), 창의력 ‘의’(意), 기억(記意), 잊을 망(忘), 감정(感情)에 심(心)자가 들어있다. 또한 우리는 예로부터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있는 말, 마음에 없는 말”,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가는 대로’라고도 하였다. 우리는 고대부터 심적 영역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 ‘창의적 인재’

여기서 두 가지를 주시해야 한다. 첫째, 창의력에 감정의 세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흔히들 기술과 인문학을 합친 ‘합학’을 창의력의 텃밭처럼 여기는 융합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성을 강조하는 머리의 이치와 감정을 뜻하는 가슴의 이치가 합쳐진 합리적 사고방식이며 협력과 협업으로 집단지성을 이루는 합심으로 본다. 즉,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창의적인 인재인 것이다. 아인슈타인도 진정한 예술과 모든 과학의 원천이 바로 감정이라고 했다.

둘째, 그래서 지식과 사고력(인지적 영역) 향상과 더불어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 분단에 대한 역사가 해방전후의 국제배경, 6.25, UN, 이승만, 판문점 등 인물과 날짜와 장소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분석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 분단에 대한 억울함, 아픔, 슬픔과 전쟁에 대한 고통, 비참함, 두려움을 충분히 느끼면서 분단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면 좋겠다. 그럴 때 통일로 얻을 기쁨과 자존감, 자신감을 상상해보게 될 테며, 통일에 도전하게 되고, 또 각자 한반도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창의력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다. 창의력은 우리 학생 모두 각자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더 나가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학교 운영 사례

“꿈을 키워라~ 융합적으로 사고하라~”

글 | 최병국 경기 풍동중학교 교장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지하자원은 없다. 그런데 인구는 많다. 그러니 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길 밖에 없다. 필자는 학교장으로서 기초·기본교육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꿈을 갖게 하는 일이 가장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 길이며,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본교는 창의·인성 모델학교로서 학생들을 올바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작품을 창출하면서 자신의 내면세계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속에 갇혀 있던 자리에서 깨질을 깨고 넓고 자유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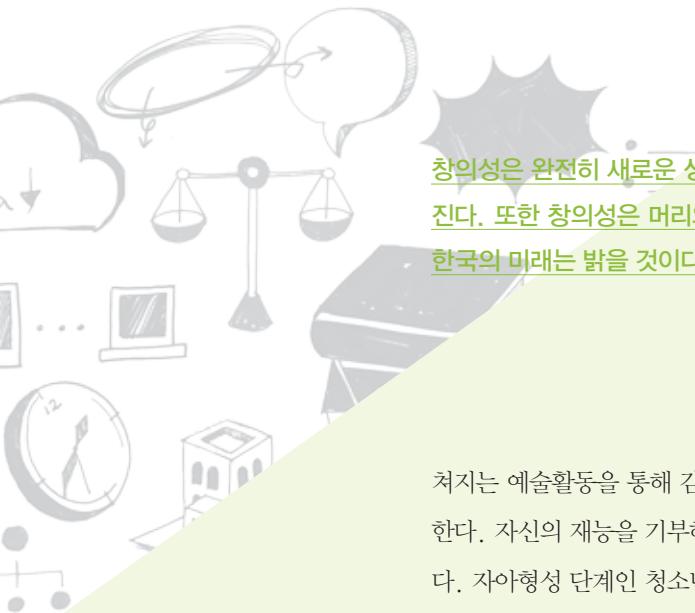
지식 암기를 뛰어 넘어 적용·활용법 가르치는 교육

창의력 신장을 위한 본교의 프로그램은 첫째, 창의·인성교육과 STEAM을 접목한 것이다.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은 다양해지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력이 신장되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워크숍을 통해 전교사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해당학기의 융합교육 요소를 찾아내어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방법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였다.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직면한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수업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간 실시할 융합교육의 교과, 내용,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여 재구성안을 작성하고,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까지 연계하였다. 새로운 배움과 평가가 연계되어 수행평가 부담도 줄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 사고력 신장의 예를 들어보면, 한 수학교사는 투호놀이를 전통놀이의 하나로만 인식하지 않고 날아가는 화살을 수학교과의 포물선에 연계시켜 교육을 하고 또 다른 수학교사는 화폐를 통해 알 수 있는 인물 선정, 디자인 선정 등 토론학습을 거쳐 미술교과의 화폐제작으로까지 연계하여 교육한다. 또 1학년 사회의 경제 부분을 배우면서 모의 창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이런 활동은 자기주도적인 탐색을 바탕으로 토론, 협동학습, 발표, 프로젝트학습 등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형태를 띠고 있다. 본교는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주제중심 통합교육으로 미래지향적 교육을 펼치고 있다.

둘째, 끼를 펼쳐 꿈을 찾아가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1인 1성장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있다. 창의성 교육의 근간인 사고력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독서·토론·논술활동을 연간 운영하고, 월마다 펼





창의성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에서 다르게 생각해봄으로써 길러진다. 또한 창의성은 머리와 마음이 합쳐질 때 나온다. 성적향상이 아닌, 실력과 창의성을 기른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쳐지는 예술활동을 통해 감수성을 기르며, 학생의 흥미를 찾아내는 체험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나눔과 소통능력을 기르면서 품성을 함양하고 있다. 자아형성 단계인 청소년기에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이 내면의 갑각을 깨워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돋는다.

40여 개의 동아리활동을 통해 또래중조활동, 시설방문 영어동화책 읽어주기, 영어뮤지컬 공연, 푸른봉사단, 보육시설 방문, 과학나눔, 국제교류활동, 삼성드림 클래스 운영을 통해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이 모든 학교 활동은 학생들의 1인 1성장 포트폴리오 안에 보고서, 소감문, 체험기, 문집, 작품 등의 형태로 기록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끼를 펼칠 기회도 많아지고, 꿈을 찾아가는 행복한 ‘미래길’을 고민하게 된다. 학생들은 체험한 오늘의 기록을 포트폴리오에 채워가면서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지게 된다. 부정적 자아관은 창의적 사고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머리와 마음이 합쳐질 때 ‘창의성’이 나온다

본교의 이런 노력이 인정받아 전국 모델학교 운영교 중에서 최우수 운영교로 지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융합교육은 창의적 사고력을 근간으로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시도되었고 포트폴리오는 사교육이 해낼 수 없는 결과물을 축적하고 있다. 이런 교육을 중학교 3년간 꾸준히 실시한다면, 문제풀이와 지식의 암기에서 얻지 못하는 소중한 교육적 경험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학생이 주도적으로 경험하고, 탐구하고, 실행해본 체험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

미래사회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인재를 요구한다. ‘No. 1’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Only 1’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록펠러는 ‘창의성은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는 능력이다’라고 했다. 창의성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에서 다르게 생각해봄으로써 길러진다. 또한 창의성은 머리와 마음이 합쳐질 때 나온다. 성적향상이 아닌, 실력과 창의성을 기른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예전에 따르면 2025년 즈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세계 2등이 될 것이라고 한다. 에디슨, 스티브잡스, 빌 게이트, 백남준 같은 인재를 만들어가는 길이 우리 교육의 미래이며 사명이다. 결국은 바른 인성 위에 꽂 피운 창의성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

학습자의 수업 주도력을 통한 창의력 신장

교사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의수업 만든다

글 | 이성희 천안불당초 교사

흔히 창의성 수업이란 '학생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수업을 어떻게 해야 창의성을 키울 수 있을까?

많은 교사들이 창의성 수업하면, 브레인스토밍이나 PMI 등의 기법을 넣어 수업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창의성 수업을 하려면 창의성 기법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창의성 수업은 창의성 기법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적절한 발문부터 팀프로젝트 학습까지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창의성을 키워주는 학생중심의 교실수업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준비를 어렵게 생각한다. 그러나 흔히 사용하는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이나 모조지 한 장, 소품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효율성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사의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오랜 시간이나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는 교사에게도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학년 초 친밀감 형성이 창의 수업의 시작점

필자는 창의성 수업을 위해 학년 초부터 학생들과의 친밀감 형성 프로젝트를 2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업은 활동중심, 학생중심 수업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교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년 초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며 학생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

더니 학생들도 필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바른 수업태도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한 후에 본격적으로 창의성 수업을 진행하였다. 전교과에 걸쳐 진행하였지만 그중에서도 국어·수학·사회·과학 교과가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먼저, 국어는 글을 읽고 교과서에 제시된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 창의적 언어사용능력이 키워지도록 하였다. 특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자유연상 기법을 적용해 보았다. 자유연상 기법 중 이야기 이어나가기는 교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여 학생들이 그 뒤이야기를 한 문장씩 잇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어느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하고 말하면 첫 번째 학생이 '그런데 아침에 가져왔던 우산이 없어졌어요.'라고 잇고, 다음 학생이 '집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잇다보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생한 이야기는 잠들어 있던 학생들의 상상력을 크게 키우면서 국어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사회는 다양한 창의성 사고기법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교과다. 발상의 변수를 추출하여 조합하는 매트릭스 기법이나 좋은 점과 고칠 점, 흥미로운 점을 찾아 새로운 방법을 찾는 PMI 기법, 색깔이 다른 모자를 쓰고 색깔별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보도록 하는 육색사고모자 등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수업



교사들은 수업준비를 어렵게 생각한다. 그러나 흔히 사용하는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이나 모조지 한 장, 소품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효율성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사의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오랜 시간이나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는 교사에게도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사회를 지루한 암기교과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의 생각이 사회현상에 대해 조사와 탐구, 토론 등을 통해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실감나게 알아보는 재미있는 교과로 바뀌게 되었다.

수학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많이 적용하였다. 반복적인 문제풀이보다는 생활 속에서 수학 찾기, 수학 일기쓰기, 수학 노래 만들어 부르기, 수학 이야기 만들기, 수학 퀴즈 만들기 등 학생들이 흥미로워 하는 활동을 수학과 연계하였다. 수학에 대한 원리를 재미있게 알게 되면서 수학과목을 새롭게 바라보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학생주도의 탐구토론 생각하는 학생으로

과학 역시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탐구토론이 가장 효과가 높았다. 평소 과학시간에는 실험계획을 세우고 모둠원이 실험하고 결과를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다, 처음으로 탐구토론을 도입했더니 학생들이 매우 흥미로워했다. 수업 진행시 교사는 처음 동기유발과 마지막의 학습정리 단계만 진행하였고, 수업의 핵심인 탐구토론은 학생주도로 진행하였다(표 참조).

〈표〉 탐구토론의 흐름



탐구토론은 자주하기가 어려워 단원이 마무리되는 차시에 적용하였다. 그 때마다 학생들의 창의력이 신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수업방법은 충남교육청의 우수수업 사례로 선정되어 동영상으로도 공개하고 있다.

창의성 수업을 어렵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교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쉽고 재미있으며, 매우 효과가 높은 수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조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도할 학생에 대한 수준을 파악했다면 단기별, 장기별 계획이 필요하다. 가령, 쉬운 질문에서 어려운 질문으로, 창의적 사고기법도 브레인스토밍이나 역할놀이에서 어려운 트리즈나 CPS로, 수업형태도 집단에서 모둠, 개인 순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창의성 수업으로 빠져들게 해야 한다. 교사의 관심과 노력으로 탄생한 창의성 수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할 때 교사도 행복하다. 2014학년도 새 학년에는 창의성 수업으로 보다 큰 행복을 누려보자. ④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사의 발문

수업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할 것인가?

글 | 백영선 부산 금정고등학교 교사

텔레비전 스포츠 하이라이트는 오늘 있었던 경기의 주요 장면들을 멋진 해설과 함께 제공한다. 2시간의 축구경기를 지켜볼 필요없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1분짜리 축구 경기의 주요장면을 시청하면서 2시간의 축구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EBS에서 방영된 적이 있는 '최고의 교수'에서 D. 허슈바흐 교수의 말처럼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느냐는 점이다.

학습의 양을 늘리는 방식을 극복하고, 어떻게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것은 줄이고(teach less) 배우는 것을 늘리도록(learn more)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교사의 발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교사 발문의 몇 가지 방향을 소개한다.

가르치려는 것을 고집어내는 교육 '교사의 발문'

우선 학생들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필수적이다. 학생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가르치려는 것에서 고집어내는 방향으로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바로 교사의 발문이다.

둘째, 수업지도안에 담아야 하는 것은 학습 내용이 아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도안은 학습의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던질 발문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교사가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고, 학생들의 어떤 응답에 교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학습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翳而不學則殆)고 하였다. 논어 위정편에 있는 말이다.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에 대한 학습 역시 창의력의 토양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학습한 내용과 원리가 나



질문에 답하는 학생을 넘어, 질문을 잘하는 학생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질문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다. 교사 발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을 고민하게 하여 질문하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답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곳인가? 나는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질문해야 한다. 그래야 배움이 일어난다.

넷째, 질문에 답하는 학생을 넘어, 질문을 잘하는 학생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질문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다. 교사 발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을 고민하게 하여 질문하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답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더 좋은 질문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인성이 실력이 되는 집단지성의 시대이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자극하는 발문을…

다섯째, 교사 발문의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를 측정하는 발문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자극하는 발문이어야 한다. 별이 금보다 아름답고,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데는 강의보다 질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책을 읽고 싶다는 욕구를 지니도록 불을 지피는 방향의 질문을 만드는데 교사는 노력해야 한다.

의문을 갖고 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갖도록 해야 한다. 여유가 있어야 생각도 많아지고 질문이 생겨나는 법이다. 디지털 치매시대에 단순 사실의 기억을 강조하는 퀴즈 프로그램들도 중요하겠지만, 긴 호흡의 생각을 기르는 질문들로 가득한 퀴즈 프로그램 하나 없는 현실이 아쉬운 실정이다.

그리고 보면, 교사가 좋은 발문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기법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가 창의적인 사고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낳는 법이다. 누구를 이기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꿈과 끼를 키우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창의와 개성이 살아 숨 쉬도록, 생각이 변화할 수 있도록 발문을 디자인하는 교사의 역할이 소중한 시대이다. ☰

병아리를 품는 어미닭처럼…

김정제 인천구월서초등학교 교장

적지 않은 논란과 우려 속에 돌봄교실의 확대 운영이 시작되었다.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시설과 예산 문제, 학교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과 돌봄 교사의 처우 요구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돌봄교실 운영의 목적과 기능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교육적 요구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출산과 보육으로 제한받는 여성들의 사회활동 확대 지원과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과후 보육과 교육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어린이의 안전한 보호와 지도로 바람직한 성장 발달 지원 등의 돌봄교실 운영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 때문에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반대 주장은 논리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주로 시설과 예산, 사전준비 소홀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제 돌봄교실의 확대 운영이 시작된 만큼, 시설과 예산, 프로그램 개발, 적용으로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소수이면서도,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여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배출한 민족이 유대인이다. 칼 막스, 프로이드, 샤갈, 아인슈타인, 번스타인, 키신저, 스플버그 등 인류역사상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유대인의 힘의 원천을, 사람들은 그들의 교육관에서 찾는다.

북쪽 마을의 시찰 임무를 떠고 파견된 두 사람의 랍비가 마을에 도착하여 말했다.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알아볼 일이 있소.”

잠시 후 마을의 치안을 담당한 사람이 나오자 랍비가 말했다.

“아니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오.”

이번에는 수비대장이 나왔다. 그러자 두 랍비가 말했다.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은 치안담당이나 수비대장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이란 말이오. 경관이나 군인은 마을을 파괴할 뿐이오.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란 말이오.”

이 탈무드 이야기는 마을을 지키는 진정한 힘은 교육이라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넓은 안목으로 생각한다면, 학교의 보육기능 확대를 거부하거나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다방면으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돌봄교실 확대 운영은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나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보육과 교육 문화에 영향을 주는 일이다. 이제 돌봄 지원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전 국민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물론 학교마다 돌봄교실 확대에 필요한 시설과 예산, 프로그램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돌봄교실 운영 확대에 소홀하거나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완벽한 준비나 여건 위에 실시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제도나 정책이란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에서 비롯되고, 인간의 생각과 욕구는 일정하지 않아 끊임없는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상황에 매달리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생각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질과 최고 수준의 학력을 가진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배우고 익힌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샘솟는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성취감을 느껴야 할 시기를, 육아와 가사에 묻혀 보내야 하는 현실은, 개인의 자아실현에 커다란 장벽임은 물론 국가적 손실이다. 관련기관들은 소요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주장하기에 앞서 각 가정의 보육 경비와, 그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활동 제약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돌봄교실 확대 운영은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나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보육과 교육 문화에 영향을 주는 일이다. 이제 돌봄 지원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전 국민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학교보다 넓은 가슴을 가진 시설이 없다. 아이들에게 학교처럼 믿음직하고 따뜻한 품 또한 없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관심과 열정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문제이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여성들도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일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와,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일 것이다.

이제 학교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 모두를 따뜻한 가슴으로 품고 감싸는 마음으로, 두 팔을 더 넓게 벌려야 할 때이다. 학교마저 가슴을 웅크리고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아이들은 과연 누가 돌볼 것인가? ②



김정재 교장

학교 주관 사설 캠프에 참여해 사고를 당했다면…

Q

자녀 둘을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주관한 사설캠프에 참여했던 첫째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학생 모두가 참여했던 행사이고 학교에서 책임진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보냈는데 아이가 다쳐서 무척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학생의 안전사는 학내에서 학생들의 부주의나 장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하지만, 종종 위의 예시처럼 학교 밖 캠프나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작년 7월 충남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단체로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에 참가하였다가 5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형적인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한 시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안전사고를 총괄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www.ssif.or.kr)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동 기관에서는 2012년 기준 70,040건의 사고에 276억 원을 보상했는데, 이는 2011년 통계에 비해 사고 건수로는 18.7%, 보상지급액으로는 19.9%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사고발생 시간별로는 체육시간(28.8%), 점심시간(19%), 휴식 및 청소시간(17.7%), 수업시간(14.5%), 학교행사(8.8%), 등하교시간(5.8%), 특별활동(5.4%)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유형도 충돌/부딪힘, 미끄러짐, 자상/절단/관통상, 추락, 물체에 대한 손상, 화상, 의도적 손상 등 다양합니다.

이처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법률적인 용어로 ‘학교안전사고’로 통칭하여 사용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란 「교육과 관련한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동 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이란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에 참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부실한 관리감독과 기준미달의 시설에서 비롯되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 및 (나)와 관련된 활동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다)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행 법률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규정은 폭넓고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의 예시는 학교에서 계획한 야외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이 학교 밖 수련회에 참가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으로 구분되며, 보상의 범위는 주로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또 이때 고려해야 할 요건은 외부 사설캠프가 인기를 받았는지, 학교가 수련활동을 계획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지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공주사대부고의 경우 학교 측에서 비인가 사설기관에 수련활동을 맡겼고, 계약추진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심의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체 활동이 왕성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초·중등학생에 의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는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후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기본 출발점은 교육주체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생의 안전한 보호이며, 이 신뢰와 안전을 통해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집니다.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생명의 존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부실한 관리감독과 기준미달의 시설에서 비롯되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

‘높게! 넓게! 함께!’ 소통·공감 행복교육 디자인



도담초는 2013년 3월에 개교한 신생학교지만 아무지고 탐스럽다는 ‘도담’의 의미처럼 이미 세종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도담초는 세종정부청사 인근 1~4생활권에 위치한 학교로 현재 7학급 136명의 학생들이 최첨단 스마트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를 둘러싼 주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종시 첫마을의 학생들을 통학버스로 등하교시키고 있지만, 스마트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소인수 학급의 교육적 혜택이 더해져 초등명문으로서의 궁지를 갖고 있다.

전국 각처에서 모인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교육과정과 개별화 교육으로 세종교육의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교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유관기관의 지원, 학부모들의 봉사를 기억하며 초대교장으로서의 1년을 반추해 본다.

개교 1년차의 신설학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본교의 교훈은 ‘높게(Dream Higher) · 넓게(Think Broader) · 함께(Work Together)’이다. 미래를 향한 꿈과 목표는 높게, 세계를 향한 생각과 시각은 넓게, 삶을 바꾸는 실천과 도전은 함께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창의 인재로 성장하자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초대교장으로서 ‘큰 꿈을 키워 미래를 여는 한울 도담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삼고 교육철학과 사명을 담은 행복 배움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겪었다. ‘스마트스쿨’로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 교육기자재며 학습자료를 구비하는 일, 하물며 교가 작사·작곡에서부터 교표 디자인, 교화, 교목 선정하는 일 등 준비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수립, 교육과정 설명회 등을 추진하면서 퇴근시간도 잊고 오로지 ‘도담초’만을 오롯이 생각하였다. 지난해 2월 개교를 앞두고, 3월 총회에서, 5월 수업공개의 날에, 6월 영어캠프설명회에, 9월에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들 앞에서 앞으로 펼쳐나갈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수없이 설명하고 대화하면서 도담교육의

학교교육의 본질도 ‘사랑’이다. 사랑의 눈빛을 전하고, 눈높이를 낮춰 이해하며, 혼자 살 수 있도록 노력할 때 학생이 변하고 교실과 세상이 변화할 것이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아낸다.

1



2



1. 갯벌체험

2. 교내 작물 수확

그림을 완성하였다.

우리 학교의 스마트교육은 교사 중심의 티칭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협동학습, 생활 속에서 제시되는 상황 학습을 통해 정형화되지 않는 형태로 교실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학습자료 저장 및 온라인 학습 운영이 가능한 네트워킹 기능을 함유한 클라우드(Cloud) 서버를 활용하여 교실수업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였다.

모든 교실과 특별실에는 전자칠판이 있고, 4학년 이상의 학생 전원에게 스마트패드가 지원되어 1인 1스마트 디바이스 체제를 갖추고 있어 협업과 공유가 가능하다. 스마트교육의 핵심 동력은 교사다. 교사들은 보다 더 전문적인 개별 맞춤형 티칭과 코칭으로 행복한 학습사회를 열어가는 스마트교육 전문가가 되고자 인근학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스마트교육 환경에서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직무연수를 진행하였으며, 매월 2회 교내 스마트연수를 실시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스마트교육 교사동아리를 조직 운영하였다.

본교의 사랑거리 중 하나는 영어전용 첨단도서관 ‘Osolgir(오솔길)’이다. 이는 ‘실용영어 도전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국 초등학생들의 영어 어휘 및 독해력 프로그램을 본교에 도입, 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학부모 봉사자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영어 실력을 수시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스마트교육과 전인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학교

스마트교육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게임 중독이나 인간 소외 현상과 같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학교장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교는 ‘생생현장 체험 프로젝트’와 ‘바른인성 행복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덕·체를 고루 겸비한 전인적 인간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연중 실시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근의 목인동 농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체험을 실시하였으며, 교내 뒷밭을 활용하여 학년별로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도시형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벼농사를 직접 체험하였다. 모내기를 시작으로 수확의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 벼 배기, 떡 만들기 활동을 함께 병행하여 곡식의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 및 자연의 신비를 함께 느끼도록 지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교는 ‘한울 10가족’이라는 이색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울 10가족’이란 교사와 더불어 학년별로 학생을 고루 편성하여 10명을 한 가족으로 꾸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교육활동이다. 학교장인 필자 또한 9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10가족 중 햇살가족 가장인 필자부터 밑반찬을 만들어 해당 학생 가정으로 전달해 주는가 하면, 알뜰바자회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학생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바른 인성 함양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본교는 여느 학교와 다른 특수한 부분이 있다. 세종시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맞지 않아 정해진 학군에 처음부터 입학하지 못하고 학교가 완성될 때까지 본교를 거쳐가는 학생이 많다. 본교 학생 중 일부는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학교가 개교하면 또다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애교심과 소속감이 약한 편이다. 하지만 ‘한울 10가족’ 프로그램은 이런 아이들을 똘똘 뭉쳐 진짜 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문화예술체험 확대를 위해 ‘꿈·끼·재능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교육청 연계 거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40여 개 개설하여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돋고 있으며 그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학교가기를 기다리는 아이들… 작은 변화에 ‘보람’ 느껴

개교한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등하교 통학버스 운행시간과 증차문제, 크고 작은 민원해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학부모 요구사항, 학생들의 환경 및 학업 수행능력의 양극화, 학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직원, 매일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벅찬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나 교직원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질 높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채감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가 힘이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학생들은 감사할 줄 알고, 학교 오는 시간을 기다리며, 밝고 빛나는 표정으로 인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에서 우리는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나는 축복받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국가와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되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며 ‘축복은 곧 책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한 해 본교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 교육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방과후학교 우수 교육감 표창, 그리고 크고 작은 대회에서 학생들의 입상도 이어졌다. 이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경험과 기회로 자신감이 충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인이 열광하는 흥행 돌풍을 몰고 온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주는 메시지는 ‘사랑’이다. 꽁꽁 언 겨울왕국을 녹이고, 얼어붙은 심장을 뛰게 하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 행복한 왕국으로 환원시킨 힘은 사랑이었다. 학교교육의 본질도 ‘사랑’이다. 사랑의 눈빛을 전하고, 눈높이를 낮춰 이해하며, 혼자 살 수 있도록 조력할 때 학생이 변하고 교실과 세상이 변화할 것이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아낸다. 가르쳐야 할 학생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소통·공감의 행복교육을 디자인한다. ☺

외모제일주의 ‘셀프성형’을 아시나요?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이 아예 종자가 달라졌다’면서 혀를 끌끌 찬다. 특별히 여학생들의 외모를 보면 실감이 난다. 어른들만 하는 줄 알았던 화장을 줄기차게 한다. 그래서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제발 화장하지 말라.’고 일 년 내 지도를 하지만 아이들은 눈치를 봐가며 그칠 줄 모른다. 중·고 여학생들을 겨냥해서 특화된 화장품을 내놓고 정교한 영업 전략을 구사하는 화장품 가게도 문제다. 여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풍속이 자리잡혀 가는 듯 보이니 말이다.

중·고 여학생들은 주로 입술 보습제가 포함된 립글로스와 얼굴을 뾰얗게 해주는 BB크림을 쓴다. 그 후 속눈썹 집게와 마스카라(속눈썹이 짙고 길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칠하는 화장품), 아이라이너(눈에 윤곽을 그리는 화장품), 립 라이너(입술 바깥선을 그려 립스틱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화장품), 블러셔(볼 부분에 컬러를 주어 입체감을 주는 화장품), 컨실러(피부의 결점을 감춰주는 화장품), BB크림에서 더 발전한 CC크림까지 사용한다.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달고, 머리는 염색을 하고 교복상의는 허리라인을 넣어 짧게 만들고, 치마도 짧게 고친다. 선생님들은 교복 물려입기 운동을 할 때 이런 옷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쌩인다.^^

외모에 관심많은 여학생을 겨냥한 틈새시장

그러던 아이들이 드디어 성형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쌍꺼풀 수술, 앞트임과 뒤티트임, 응비수술, 필러수술, 광대뼈와 사각턱을 교정하는 수술 등 간간히 소문으로만 듣던 성형에 대한 내용들이 아이돌 스타들

진정한 아름다움은 쌍꺼풀을 한 크고 또렷한 눈이 아니라 인정어린 마음으로 빛어낸 다정한 눈웃음이 아닐까? 마음이 빛어내는 더 큰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 즉 내미지인(内美之人)을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스며드는 외모지상주의에 제동을 걸 시기가 아닐까.

의 성형 전후 사진과 더불어 아이들의 세계에도 소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쌍꺼풀 수술과 앞·뒤트임을 동시에 하면 이백만원 내외의 돈이 드니 학생의 신분으로는 엄두를 못 낸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이런 고충(?)을 해결해 주는 틈새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셀프성형.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싼 값으로 구입한 미용보조기구로 성형효과를 흉내 내는 것이다. 여학생들에게 인기 1순위는 쌍꺼풀을 만들어 주는 쌍꺼풀 테이프(액)다. 윗눈꺼풀에 붙이고 낚싯줄이 달린 Y형 집게로 밀어 올리면 2분 안에 쌍꺼풀이 생긴다. 내친김에 가는 실모양의 튜명테이프로 아랫눈꺼풀을 압박하듯 졸라매면 웃을 때 나타나는 애교살이 생긴다. 10개들이나 5개들이 한통에 몇 천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불티나게 팔린다. 하지만 연약한 눈꺼풀에 강제로 장시간 주름을 잡으면 마침내 살이 늘어져서 되돌아오지 않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또한 눈동자를 더 크고 검게 보이게 만드는 컬러렌즈도 문제다. 시중의 안경점에서 오천 원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조잡하게 만든 저가의 렌즈는 아이들의 각막을 쉽게 손상시킨다. 이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문제다.

다음으로 코의 모양을 높여준다는 코높이 집게와 얼굴을 V라인으로 만들어준다는 롤러와 마사지 기구들이 있다. 코높이 집게는 아크릴로 된 집게 끝에 실리콘패드를 부착하여 잡자는 동안 코의 연골을 집어서 콧대가 오뚝하게 서게 한다는 것이다. 가격도 불과 삼천원 밖에 하지 않는 데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손쉽게 배달된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코연골 성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각턱이나 처진 얼굴, 팔자주름, 비대칭인 얼굴, 울퉁불퉁한 얼굴을 마사지로 교정해서 V라인으로 만들어 준다는 보조도구들도 많다. 하지만 주장만큼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기구만 구입하게 된다.

성형에 연연하는 여학생들… 내미지인 가르쳐야

여학생들은 왜 성형에 연연할까? 예뻐지고 싶기 때문이다. 외국인들도 한마디씩 하는 한국의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는 어디서 온 것일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아이들을 부추기고,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업전략을 구사하는 기관들과,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것을 주려 하지 않고 단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과, 그런 흐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바라본 어른들의 탓이 아닐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쌍꺼풀을 한 크고 또렷한 눈이 아니라 인정어린 마음으로 빛어낸 다정한 눈웃음이 아닐까? 마음이 빛어내는 더 큰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 즉 내미지인(内美之人)을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스며드는 외모지상주의에 제동을 걸 시기가 아닐까. ☺

NEWS BRIEFING

'전통문화' 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통문화'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하였다. '2014년 교육기부 주간'은 사회 각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실생활의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테마별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2014년 교육기부 주간의 2월 주제인 '전통문화'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옛 문화를 경험하고, 우리 조상의 흥과 멋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고장 향토문화', '전통문화 정신의 계승과 발전', '우리 문화유산의 소

중함' 등이 운영되었다. 총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통문화' 교육기부에서는 전통문화·민속문화·문화유산·역사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 등 30종이 진행되었으며, 약 43,18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명사가 들려주는 선조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고연주가 김덕수, 국악인 안숙선, 한국무용가 조홍동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방과후학교지원과

유사 유학 프로그램 참여 주의 요망

교육부는 '고교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선발하여 국내대학에서 1년간, 미국대학에서 3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OO 국제전형」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에 학생·학부모의 참여 자제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대학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2013년 10월에 동유학 프로그램을 고등교육법 및 외국 교육기관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의 신중한 선택과 주의를 촉구 한 바 있으며, 관련 유학원을 수사 의뢰하여 현재 검찰에서 해당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광고에서 미국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1년간 국내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국내 25개 대학은 해당 1+3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도, 계획도 없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일부대학은 해당 미국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유학업체에 대학명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생·학부모에게는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학학사평가과

태국인 한국어교사 양성 교육 시행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월 12일부터 4개월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태국인 3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의 한국 내 교육을 시행 한다.

'태국인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은 태국 교육부에서 예비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선발한 35명 대상의 특별 교육과정이며, 한국에서 시행하는 4개월간의 교육과정은 최초의 단일국가 대상 비원어민 한국어교사 정규 양성과정이다.

이 교육은 기존의 내국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는 달리, 한국어 강화 수업과 한·태국 언어와 문화 대조를 통한 한국문화 이해 수업, 교육시수가 증강된 한국어교육 실습 등 태국인 맞춤형의 수업으로 운영된다.

'태국인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은 태국정부가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4년째 시행하고 있는 '태국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과는 별개로 우수한 태국인 한국어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현행 '태국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은 현지 중등학교 한국어 보급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나, 사업추진 연한이 2015년도까지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태국정부는 자국 출신 한국어교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태국인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추진을 결정하게 되었다.

재외동포교육담당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대폭 확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월 12일 평생학습계좌제 기관단위 평가인정 결과를 발표하고 인정패를 수여하였다.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은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수준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절차이며, 현재 평가인정 받은 프로그램 2천여개를 DB화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한 기관단위 평가인정은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범 도입되었으며,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평생교육 비전과 전략, 프로그램 운영, 교·강사 관리 및 학습자 지원 기반 구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6개 교육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평가인정 기관은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

평생학습정책과

역사교과서 어디까지 다를 것인가?

교육부는 2월 17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중·고교 역사교사들이 참여하는 '역사교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역사교과서 개선 방향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교육부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

다.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와 해법을 교육적 차원에서부터 검토하여 역사교육의 방향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 받은 85명의 중·고교 역사, 사회 교사들이 참여하여 '역사교과서 어디까지 다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역사교육지원팀

학교급식 위생·안전 학부모가 직접 쟁진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3월 신학기부터 위생·안전 점검에 학부모 참여제 도입 및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등 급식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위촉된 학교급식점검단원(학부모, 시민단체회원, 관계기관 등) 2,400여 명을 대상으로 2월 중 전달연수를 실시한 뒤 3월 신학기부터 학부모 등 학교급식점검단원이

급식현장 안전점검에 참여하여 급식의

질과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은 연 2회 이상 급식시설·설비 및 식재료·조리·배식·세척과정 등 총 83개 항목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에 5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교육청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건강안전과

학교폭력 해결 고고고!

교육부와 KBS미디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해피콘서트 시즌2'를 제작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한다. '해피콘서트 시즌2'는 2'의 효과적 활용에 따른 후속작으로, 개그콘서트 인기코너 출연진 및 EXO, 슈퍼주니어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직접 출연하여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

응방안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첫 번째 코너인 '놈·놈·놈'에서는 필근이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장난이거나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낀다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황해'에서는 보이스피싱 상황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해결 불법심부름센터

에 대한 내용 및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다뤘다.

본 동영상은 폭력예방 및 균절의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종합포털사이트 '스톱불링'(www.stopbullying.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과



교직원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하다

교직원힐링캠프 ‘마음학교’ 운영

“쉬지도 않고 계속 담임을 맡으면서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지지와 응원의 말을 들으니 힘이 나요.”

“꽉 막힌 듯 답답한 학교생활과 삶에 대한 허무함 때문에 힘들었는데, 잠시 일상을 떠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어요.”

교직원힐링캠프인 ‘마음학교’에 참가했던 이들이 꺼낸 얘기들이다. 2013년 5월 강원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자기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음학교’를 열었다.

그동안 다른 시 · 도교육청에서 ‘교사힐링캠프’를 운영한 사례는 있지만, 계약제직원을 포함한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소그룹 감정치료를 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처음이다.

2박3일~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마음학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에만 20회 운영됐으며, 총 250여 명이 참가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에도 ‘마음학교’를 20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학생교육원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열린 ‘마음학교’ 심화과정에는 강원도내 교직원 12명이 참가했다. 심화과정 참가자들은 “힘든 게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 마음학교에 참여했을 때의 느낌이 좋아서 이번에도 참여를하게 됐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마음학교’ 운영을 맡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진흥과 김용희 장학사는 “그동안 교직원힐링캠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학교’가 이를처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음학교는 △숲체원 – 숲과 모래놀이 치료 △아리랑풀이 – 집단상담 △낙산사 – 템플스테이 △원주 구나심리연구소 – Fell Plus 등 과정마다 특색 있는 양질의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직원들의 힐링과 행복감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❷



‘마음학교’에 참여한 교사들이 벌우공양을 하며 자기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다.

『행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발 인성!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감성·소통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운동과 인성교육 실천프로젝트수업, 학생 자치활동, 학부모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제별 실천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운영.’ 교과수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함께 소통하는 학교규칙 선포식’.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하여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이 자치활동 및 또래활동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학교 문화를 주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인성교육 실천운동에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천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인성 교육 주제를 정해 인성교육 사전 분위기 조성→인성교육 실천→학교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연중 지속 운영하며, 실천 주간을 계기로 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 운영 사례를 학교급 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현홍초등학교 : 감성과 소통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침 등교 시 하이파이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웃는 얼굴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좋은 아침’, ‘힘찬 하루 되세요’, ‘화이팅’ 등의 긍정적인 말을 건네으로써 밝은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선생님과 선생님 간에 하이



이동중학교 생활예절실에서 진행된 다도체험

파이브를 통해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학교 생활이 즐겁게 변화하고 있다.

• 이동중학교 : ‘우리’의 문화 “행복 YES! 폭력 NO!”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해 교내에 ‘생활예절실’을 마련하고 전교생을 순환적으로 참가시켜 마음수양, 다도체험, 전통예절 익히기 등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올바른 생활습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기르고 있다.

• 포항영일고등학교 : 1인 1악기 연주 및 합창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포항영일고등학교는 2004년부터 ‘1인 1악기 연주’를 지원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합창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1인 1악기 연주 및 합창’은 학생들로 하여금 풍부한 감성을 갖게 하고 정서를 순화시키며 특히 상호 존중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❷



울산 Best 학력정착 프로젝트 발표 전국 최상위권 학력 정착 본격 가동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월 3일 '2014 Best 학력정착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최상위권의 학력 정착을 위하여 단위학교와 교육공동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시교육청에서 발표한 2014 Best 학력정착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보통이상 학생비율을 극대화하여 기초학력미달학생 '제로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13년 학력증진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위 학교의 창의적·자율적인 학력증진 풍토 조성,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013학년도 학력증진에 기여한 대표적인 학력증진 추진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할 '학력증진친구제' 운영, 교사들의 교과학습동아리 지원, 교원들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수업분석실' 설치, 단위학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력증진을 지원할 '고교 학력 프로젝트'와 '학력증진 집중 지원학교' 운영, 고급사고력을 신장할 '공교육 논술학교 운영 및 토론회', '울산진학정보센터' 등이다.

둘째로는, 신규 사업으로 보통이상 학생비율 확대를 위하여 3up(3% up)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력증진 프로젝트 운영학교를 전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주도 학습 캠프, 맞춤형 학습 스쿨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 풍토를 조성키로 하였다. 아울러, 2013학년도 학력증진우수사례를 전파하고, 2014학년도 학력정착사업 운영비를 이달 중으로 학교에 교부하여 학력정착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중등학교는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을 기준으로 광역시 1위, 전국 2위의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바 있다.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언양중학교 학생들이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복교육의 시작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예술교육이 전인교육을 위한 기본교육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인성교육의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책을 인성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예술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의 위기를 극복할 때 비로소 행복교육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감성충만 예술교육”을 역점과제로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프로젝트를 통해 1학생 1악기 보급, 아름다운 예술여행 교원 직무연수, 아름다운 예술여행 발표회 등의 사업을 4년째 지속해 오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을 활용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187개교 전 학교에 40억4천만 원 상당의 악기를 보급하였다. 1학생 1악기 보급은 학교 여건과 수요에 맞게 학교에서 악기를 신청 받아 악기를 검수하고 현장컨설팅에 의해 악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음악시간과 방과후 시간, 토요 동아리 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아름다운 예술여행 교원 직무연수는 아름다운 예술여행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도자원 확보 및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아름다운 예술여행 발표회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와 학생뮤지컬, 예술동아리 공연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시책인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성교육”과 예술교육의 조화로운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역점과제인 “감성충만 예술교육”을 통해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프로젝트의 성과를 2014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무대 학생 2014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이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웅장한 선율을 통해 활짝 꽂피울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역점사업인 “감성충만 예술교육”이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이란 날개를 달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힐링하는 행복교육으로 높이 비상하기를 기대해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프로젝트를 지속해 오고 있다.

교과와 통합한 진로교육 준비하기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지난해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진로집중학년제 역시 2014년까지 서울시 전역 확대를 목표로 현재 시범학교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 진로집중학년제 모두 공통적으로 진로교육 강화를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의 중학교는 교과 수업 및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차원에서 진로교육 요소를 적극 가미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험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교사가 시험을 무기로(?) 강의식 수업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배움의 의미를 느끼기 힘든 기존의 수업 전략은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교과지식과 직업세계의 밀접한 관련성을 일깨우는 즉, 진로와 연계하여 교과를 가르치는 교과통합진로교육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진도 나가기와 문제 풀기에 급급한 수업 방식에 불만을 느꼈던 교사들 입장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 방식을 좀 더 여유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교과와 진로교육 목표 함께 달성

교과통합진로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상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과(국어, 수학, 사회, 기술·가정, 과학, 미술 등)와 진로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주된 통합의 방식은 보통 교과의 내용 속에 포함된 진로교육적 요소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하여 교과의 목표와 진로교육의 목표가 함께

배움의 의미를 느끼기 힘든 기존의 수업 전략은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교과지식과 직업세계의 밀접한 관련성을 일깨우는 즉, 진로와 연계하여 교과를 가르치는 교과통합진로교육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진로개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진로개발 역량이란 개인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개인이 일생 동안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자기 주도적이며 합리적으로 선택, 준비, 비교 및 평가하며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기술(skill) 및 태도를 의미한다.

미국의 진로기술교육협회 보고(2009)에 따르면 인문 및 진로 교과목 내용이 통합된 형태로 교육과정을 이루었을 때 학생들은 학습 개념을 실생활에 더 쉽게 적용하며, 맥락과 연계된 학습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 <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매뉴얼> 재인용). 도덕 과목을 그 예로 들어보자. 학교 진로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그저 이론적인 내용으로서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실제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일깨워 학업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는데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도덕에서 배우는 가치 판단 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 대화와 타협의 기술 등이 직업 선택 및 적응 즉, 진로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도덕의 교과 내용과 진로 선택 및 적응과의 실제적 관련성을 내용의 통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킨다면 학생들의 진로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동기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송은주(2013)¹⁾의 연구에 의하면 도덕과 교과교육 시간을 통해 교과통합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들의 직업가치와, 진로성숙도,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최근 각 교과에서 진로와 연계한 교과수업의 효과를 입증한 논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교과통합진로교육 준비와 실행 단계 전략

그렇다면 교과통합진로교육은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교과통합진로교육은 가르쳐야 하는 교과 지식이 실제로 직업세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구체적인 직업 목록과 그 직업에 대한 세부 정보(구체적으로 하는 일, 필요한 적성과 흥미, 학력과 자격증, 전망 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확률

1) 송은주(2013), 「도덕과 교과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직업가치와 진로성숙도,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과 통계 단원을 배울 때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지식을 활용한 유망 직업으로서 보험계리사(확률, 통계 등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 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보험료 및 보상지급금을 계산하고 보험 상품을 개발하며 보험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직업)를 소개해준다면 수학 지식을 어렵기만 하고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와 메뉴로서는 커리어넷(www.career.go.kr) 사이트의 ‘미래의 직업세계’ 직업정보’ 메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직업정보를 전달할 때 직업 동영상을 활용하면 더욱 호응을 높일 수 있는데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의 ‘직업·진로’직업동영상’ 메뉴에 직업별 5~10분 정도로 직업인 인터뷰와 직업 준비 요령을 담은 다수의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다.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교과 지식 제공과 더불어 진로교육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진로심리특성(적성, 흥미, 가치관 등) 이해를 도와주는 활동이다. 영어, 국어 등의 교과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활동을 할 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내가 되고 싶은 직업 등을 주제로 삼는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로심리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직업 선택과 준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올 3월 교과별 통합진로 원격연수 개설돼

끝으로 교과지식과 직업체험을 연결하여 교과통합진로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미술 교과에서 만들기 작업을 할 때 만들기에 앞서 음식과 관련된 직업으로서 음식모형제작자에 대해 먼저 알려주고 내가 음식점을 창업한다면 어떤 음식점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한 후 그 음식점에서 파는 메뉴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음식 모형 만들기(지점토 등 활용)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만들기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과 함께 이것에 흥미와 적성을 발휘하는 학생에게는 폭넓은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커리어넷(www.career.go.kr) 사이트의 ‘진로교육자료>빠른 서비스>진로교육>진로교육자료 실’과 ‘교과에 통합된 진로교육자료’ 메뉴에 가면 교과별로 교과통합진로교육 자료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올 3월이면 교육부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기술·가정 교과에 대해 교과별 15차시로 제작된 교과통합진로교육 원격연수를 각 시·도 교육청 원격연수원을 통해 개설하니 체계적인 교과통합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의 여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자유학기제와 진로집중학년제라는 제도적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그동안의 입시와 경쟁에 찌든 숨 막히는 수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아울러, 교과통합진로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수업을 통해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느끼는 수업이 활짝 꽂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커리어넷(www.career.go.kr)워크넷(www.work.go.kr)

새봄날 숲길을 걷다

국립수목원

설렌다.

보이지 않아서,

만질 수 없고 달을 수 없어서

두근거린다.

나뭇가지들만 엉켜있는 저 마른 숲이

이윽고 푸른 것을 밀어 올릴 모습을 상상해 보라.

새계절에 대한 기대를 더하니

이른 봄마중이 더욱 즐겁다.





1

2

3

1. 2. 국립수목원 내 난대온실에는 연분홍 동백이 화사하게 피어있다.
3.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의 역사·현황·미래를 설명하는 각종 임업자료와 유물, 목제 품 등 11,000점에 이르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산림박물관

고요하다. 봄이 달지 않은 숲엔 인적마저 끊겼다. ‘숲’은 애당초 ‘푸른’과 삼쌍동이인 듯 언제나 맞붙어있다. 푸른 숲은 아름답다. 하지만 푸르름을 잉태한 마른 숲은 더 아름답다. 푸른 날에 대한 설렘까지 품고 있기 때문인가.

5백여 년 역사를 건너온 산림생물 보물창고

광릉숲은 54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숲이다. 서어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등의 수종들이 훈재되어 있으며 특히 서어나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광릉숲에는 어린 나무부터 오래된 고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들(938분류군)이 분포한다.

또 장수하늘소와 같은 곤충들(3,966분류군)이 많다보니 이들 곤충을 먹고사는 까막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 등 조류상도 180종에 달한다. 이외에도 버섯, 포유류, 양서파종류, 어류 등 총5,800여 분류군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어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 종이 서식하고 있는 산림생물다양성의 보물창고와 같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광릉숲은 1468년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능인 광릉이 위치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조선왕실에서는 광릉을 중심으로 사방 15리(약 3600ha)의 숲을 능 부속림으로 지정하여 조선 말기까지 철저하게 보호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산림과 임업을 연구하는 시험림과 학술보존림으로 지정·보호되었다. 해방 이후 혼란한 시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도 시험림으로 잘 보존·관리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광릉수목원은 1987년 조성된 국립수목원의 전신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물원으로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우리 국민들에게는 광릉숲의 중요성을 전하고 자연을 보는 즐거움을 주고자 조성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된 후 국제적으로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우리나라 산림생물종의 다양성 유지·증진과 이를 지원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자원화 등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자 1999년 5월 24일 광릉수목원을 국립수목원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천명의 승려가 머물던 회암사의 쓸쓸한 빈터

국립수목원에서는 전시원 관리와 광릉숲 보전은 물론, 21세기 생물자원 전쟁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외 산림생물 자원(생물표본 포함)을 조사·수집·분류·보전·복원 및 관리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12월 말까지 총 67만점의 식물과 곤충 표본을 확보하고, 신종 및 한반도 미기록종 282종을 발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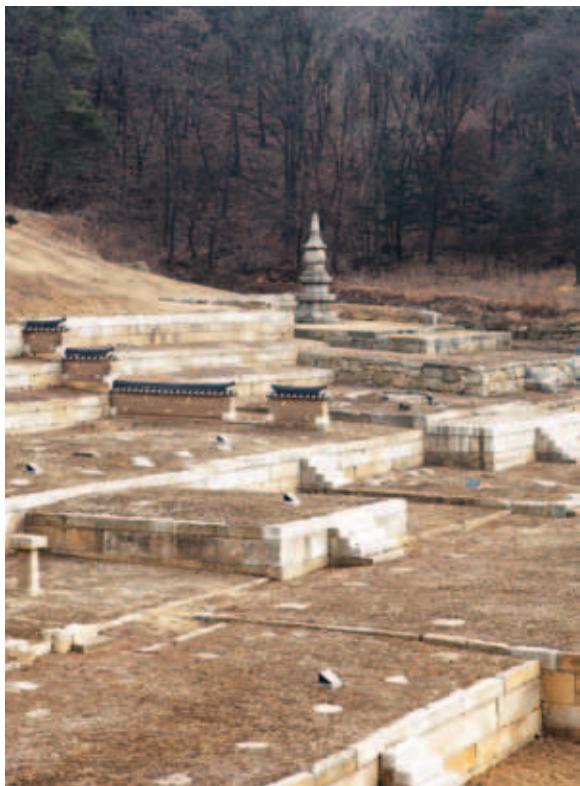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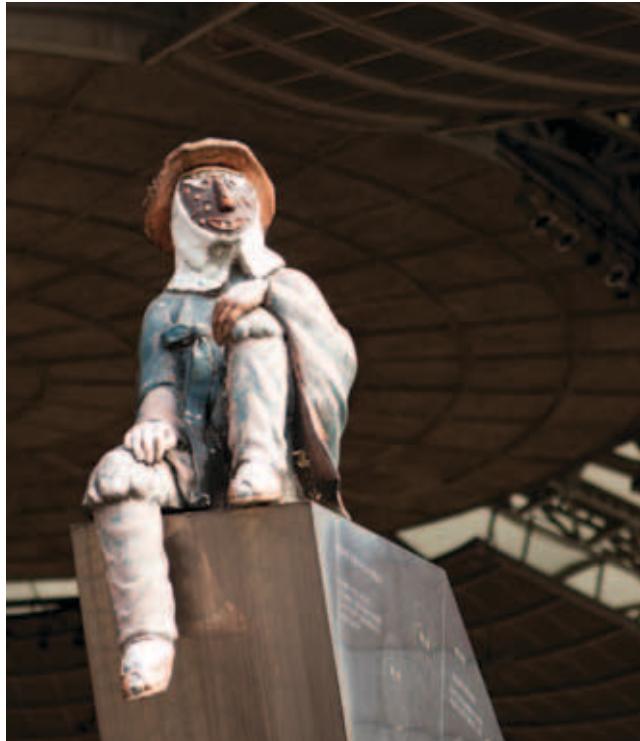
방문객을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활발하다. 장애인 및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증진'을 비롯해 야생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광릉숲 산새탐험', 숲유치원 '신나는 초록세상', 초등학생 산림교육 프로그램인 '녹색수업(현장학습, 재량활동, 찾아가는 녹색수업)' 등이 있다.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수목원해설', '산림문화체험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단, 국립수목원 입장은 홈페이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 전 예약을 잊지 말자.

국립수목원과 멀지 않은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에 양주관아지가



있다. 양주관아지는 말 그대로 관아가 있던 자리다. 양주관아는 중종1년부터 당시 양주목을 관할한 행정관청이다. 동현, 객사, 군사시설 등 약 30여 개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관아지에는 정면 7칸, 측면 4칸의 건물을 복원하였는데, 이 건물이 위치한 곳에 양주목사가 정무를 보는 관아의 중심건물인 동현(매학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불의에 대



- 5
- 6
- 7

5. 양주관이자에 복원한 매학당
6. 양주관이자 인근에 양주별산대놀이 대공연장이 있어 좋은 계절에 찾으면 신명나는 가면극을 볼 수 있다.
7.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회암사지

해 쪄렁쩌렁 호령하며 지역의 안녕을 지켰을 청렴한 공직자가 떠 오른다. 매학당은 현재 예절다도인성교육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아지를 한 바퀴 돌다보면 인근에 양주 별산대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대공연장이 있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애오개, 녹번, 사직골 등에서 전해오는 본산대(本山臺) 놀이의 한 분파로 양주목이 있던 양주읍에서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나 단오, 한가위 등에 치러졌다. 봄바람 솔솔 부는 날을 골라 마당 공연장에서 신명나는 가면극을 보는 맛도 일품이겠다.

이왕에 양주에 갔다면 회암사지를 빼놓지 말자. 고려말의 대학자인 목은 이색은 그의 책『목은집』에서 회암사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이렇게 적고 있다. “회암사는 승려 3천여 명이 머무르는 대사찰로 건물은 모두 262칸이며, 높이 15척의 불상 7구와 10척의 관음상이 봉안되었으며 건물들은 크고 웅장하며 이름답고 화려하기가 동국제일로 중국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이다.” 이곳에서는 무학대사 등 당시 불교계를 주도했던 고승들의 부도(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모신 탑 무덤)도 볼 수 있다. 한때 국가적 비호를 받으며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사찰이 이제는 빈 터만 남은 광경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

가볍고 편하게 즐기자, 스낵 컬처

다음의 인기웹툰 <미생>의 경우 영화와 TV드라마 제작에 앞서 프리퀄(prequel) 형태의 10분 미만 모바일 영화로 제작, 포털사이트 다음의 앱을 통해 공개된 지 3주 만에 누적 조회수 150만 건을 기록

회당 10분 남짓의 6부작 모바일 영화 <출출한 여자>의 경우, 30대 싱글녀 이야기에 독신을 위한 레시피를 보여주는 '먹방(먹는 방송)' 코드를 접목하여 폭발적인 공감을 얻음

모바일 드라마 <러브포텐–순정의 시대> 역시 회당 10~15분 남짓으로 회당 플레이카운트 320만 건을 돌파하며 모바일 드라마로는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

이와 같이 웹·모바일 영상 콘텐츠들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의 멀티 소비는 '스낵 컬처(Snack Culture)'의 모습으로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것.

'스낵 컬처'란 말 그대로 '스낵처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즐기는 문화'라는 의미로 IT, 패션, 음식, 방송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붐을 이루다가 최근 문화예술소비 및 창작의 지형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추세다. 문화예술소비 면에서 는 대중화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모습이, 여가문화 면에서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즐기는 모습이 스낵 컬처란 이름으로 정의될 수 있다.

모바일 영상 콘텐츠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보고 싶어 하는 시청 패턴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2013년 미국 상반기를 훨씬었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13개의 에피소드(60분물)를 일시에 공개함으로써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몰아보기' 싶어 하는 시청자의 패턴을 충족시키기도 했다.

웹소설의 경우 네이버 연재 석 달 만에 400만뷰를 기록한 소설 <광해의 연인>이 줄곧 웹소설 유료 콘텐츠 판매 1위의 기록을 세워 종이책으로도 출간되었으며, 네이버 웹소설 서비스는 출시 이후, 인기 작가의 작품은 월간 100만 명 이상의 독자가 애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고지 10~30매 안팎의 분량의 적은 분량이란 틀을 기

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게임하듯 읽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설인 '스마트 소설'도 등장하며 스낵 컬처와 웹소설의 정점을 보여준다.

여가문화 면에서 나 타나고 있는 스낵 컬처의 모습은 더 이상 여가문화를 특별히 시간을 내어 특별한 것을 하려가는 행위가 아닌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즐기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될 전망이다. 거창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동네 산책로 등을 활용하여 단기 마라톤 같은 경험을 하는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은 산, 오솔길, 산책로 등을 의미하는 '트레일(Trail)'과 달린다는 '러닝(Running)'의 합성어로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다. 굳이 짐을 자고 오지 않고도 주중(말)에 잠깐 캠핑문화를 즐기는 '데이캠핑'은 여유가 많지 않은 직장인이나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캠핑족에게 특히 각광받고 있다.

'스낵 컬처'는 문화예술 소비뿐만이 아닌 창작에서도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창작이 더 이상 전문가나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통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월, 네이버는 누구나 글을 쓰고 공유하며 작가가 될 수 있는 <웹소설> 서비스를 개시, 장르소설을 창작하여 <챌린지 리그>를 오픈함으로써 아마추어 작가들도 자신의 작품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정식 작가로서의 등단 기회를 갖게 되었다. KT가 주최한 <올레스마트폰국제영화제>의 경우 스마트폰 하나로 아침에 촬영한 동영상을 저녁에 영화로 상영할 수 있는 '당일치기' 영화제작을 행사의 콘셉트로 잡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쉽고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적은 시간에 가볍게 문화를 향유하는 성향과 더불어 창작 욕구 역시 충족하길 원하는 대중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❷



행복한 교육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교육부가 발행하는『행복한 교육』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을 비롯해 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소, 농협, 개인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행복한 교육』을 받지 못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둘째, 대학, 지역도서관, 교육모임에 보내주세요

대학, 지역도서관, 5인 이상의 교육 모임(동아리, 교육단체, NGO)이라면『행복한 교육』편집실로 신청해 주세요.

(02) 2271-0992

첫째, 우리 학교에 보내주세요

유치원, 초·중·고교에『행복한 교육』이 도착하고 있지 않다면 관내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신청해 주세요.

[시·도교육청 담당자]

서울시교육청 김미란 02-3999-120 부산시교육청 황지원
051-8600-224 대구시교육청 류은희 053-231-0052
인천시교육청 김동현 032-4208-226 광주시교육청 박재형 062-380-4250
대전시교육청 김연희 042-480-7584 울산시교육청 신진욱 052-210-5694 세종시교육청
김부환 044-320-1135 경기도교육청 우상원 031-249-0941 강원도교육청 전홍 033-258-5386 충청북도교육청
이정훈 043-290-2055 충청남도교육청 이장원 041-640-6514 전라북도교육청 김정훈 063-2393-160 전라남도교육청
김명자 061-260-0056 경상북도교육청 이선중 053-603-3283 경상남도교육청 박병규 055-278-1784 제주도
교육청 강행필 064-710-0122

셋째, 개인에게도 보내주세요

『행복한 교육』을 받아보고 싶은 개인은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시면 책을 배송해 드립니다.

모니터단은 매달 한 번씩 책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피드백해 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단은 다음 카페(행복한 교육 모여라 <http://cafe.daum.net/narae21.mest>)에 가입하여 신청하세요.

(02) 2271-0992

五자만담

장애인과 함께 가는 길 ○○○○○에서 시작된다.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섯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보내실 때는 이름, 연락처, 주소(우편번호)를 꼭 기입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eduzine21@gmail.com
(gmail은 수신확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난호 五자만담 당첨자 2월호 주제 : 디지털시대, 나의 학습노하우는 ○○○○○이다.

그래도책뿐(김미나) / 읽고쓰는것(김현영) / 신구의조화(박진규) / 종이에적기(지현숙) / 시청각활용(이주현)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2014년 3월 3일(월) ~ 3월 14일(금)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

지원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와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학부모님이 아래 ①,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①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http://online.bokjiro.go.kr>) 접속

②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선정방법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학교나 교육청,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세요.

